

부름 받은 자들...

선택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특별한 사람들을 갖고 계셨다

Ken McFarland 지음

당신은 아래의 질문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그렇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다.

- 믿음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재림교인으로서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를 알고 있는가?
- 신앙에 안락하지만 목적이 없는 “전통적인” 재림교인인 자들을 알고 있는가?
- 신앙의 삶의 깊이가 필요한 교인들을 알고 있는가?
- 신앙에서 떨어져 다시 격려가 필요한 자들을 알고 있는가?
- 재림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가?

본 책을 더 주문하고 싶을 시 뒤 표지의 안쪽의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름 받은 자들...

선택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특별한 사람들을 갖고 계셨다

Ken McFarland 지음

부름 받은 자들...
선택 받은 자들

Ken McFarland 지음 卍 이수정 옮김

Copyright © 2006 by
Hollis Scarbrough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Review and Herald Graphics
www.thecalledthechosen.com
Originally published in English under the title *The Called...The Chosen*
By Ken McFarland

본 책은 개혁개정판 성경에서 인용된 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1982 by Thomas Nelson, Inc.
All rights reserved

표지화 Elfred Lee 의 “Christ of the Narrow Way”
Copyright Ellen G. White Estate.
All rights reserved. Used with permission.

ISBN: 0-9799648-1-4
11 12 13 ◆ 6 5

목차

서문

머리말

소개

- 1 옛날 옛날에 13
- 2 대쟁투 중에서 편 고르기 21
- 3 끊어지지 않는 충신의 계보 28
- 4 반역자들을 사랑으로 이기다 34
- 5 잘못된 왕을 찾다 42
- 6 폭풍처럼 번지는 불! 47
- 7 비여, 내려라 53
- 8 광야의 여인 63
- 9 “내가 여기 있나이다” 73
- 10 잿더미에서 승리로 80
- 11 진리의 챔피언 89
- 12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선물 97
- 13 우리들의 정체성 105
- 14 당신은 누구인가 116

서문

큰 그림을 보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다. 우리는 주변에 도전들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만의 작은 세상에 갇혀 세상이 좁아지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 저 수평선을 보기보다 우리의 신발끈만 보는데 집중한다. 영적으로 우리는 물론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 또한 신경 쓰고 동시에 큰 그림 또한 볼 줄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6 장 10 절에 말씀하시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하셨다. 예수께서는 또한 21 장 28 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하셨다. 작은 일에 겸손하고 신실한 것은 인생에 중요한 것이며 큰 그림 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특별한 책 - *부름 받은 자들, 선택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을 갖고 계셨다* - 은 역사 속에서 신실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꾸준히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 읽으면서 마음이 뭉개질 것이다. 이 책은 당신에게 대쟁투의 주제를 펼칠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로서의 뿌리를 찾기 위해 역사의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선택하셨으므로 이 마지막 날들에 어떠한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셨는지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예수께서는 곧 재림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따르던 기나긴 계보의 진실을 믿는 자들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천상의 재림운동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라고 믿는다 - 그의 남은 교회 - 성령의 능력으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회개와 그리스도의 의의,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 드리며 예수의 곧 오실 재림을 가리킨다. 예언의 신에 기록된 이 강력한 말씀을 생각해보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 자신에게 특이한 보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끝날까지 성령과 만군의 여호와의 권고 안에서 완전히 연합하여 설 수 있도록 명하셨다” - 가려 뽑은 기별 2 권 397.

당신이 속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목적과 의도를 의심한 적이 있다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지구의 역사 중 그 어떠한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이르렀다 - 예수의 재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요한계시록 14 장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할 그 시기이다. 당신의 교회가 이 역할을 위해 부름 받았다. 켈 맥팔랜드가 쓴 “부름 받은 자들...선택 받은 자들”은 홀리스스칼부로의 “큰 그림”의 비전에서 비롯되며 다음과 같은 서술을 확인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절단기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어 당신 자신과 연결을 시켰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셨으며 구원의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당신을 위한 대사들이 되도록 부르셨다. 이제까지 인간에게 위탁된 것 가운데 가장 큰 진리의 부요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가장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가 세상에 전해지도록 그들에게 위탁되었다.” - 교회증언 7 권 138.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역사적인 마지막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에게 주신 책임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시대를 자세히 연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며, 이 아름다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에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당신의 신앙과 진리의 유산에 대하여 절대 망설이지 말라. 이 책을 통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영적 영감을 세상에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완벽히 깨닫게 해 줄 것이다. 아래와 같은 위대한 도전을 고려하자:

“특별한 의미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교회증언 9 권 19.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이끄셨는지 이 책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가 하늘로부터 특별하신 인도함이 필요할 것을 아셨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으로 되돌려줄 예언의 신을 주셨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게 이를 주신 이유는 이 교회가 세상에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알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 그리고 영원토록 지켜질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선포하기 위한 하늘의 선택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2 장 17 절에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을 것이라 하셨다: 그들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 즉 예언의 신을 가진 자들이다. 당신은 이 위대한 운동을 함께 하는 사람이며 이 책을 읽으면서 영감을 불어넣어줄 매 장의 마지막 문구가 다시 이 사실을 상기시킬 것이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 - 성실하고 충성스런 선택 받은 자들 - 이 계셨고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은 오늘도 존재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곧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세상에 알리는 이 특별하고 행복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켄 맥팔랜드는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한다. “당신은 이 지구를 살아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남은 무리들 중 한 명이며 이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야 할 임무이자 특권을 갖고 있다. . . . 당신은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선택 받은 자들 중 한 명이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그의 사람들을 이끄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을 통해 - 미래로 그리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지에 대해 읽으면서 축복받고, 기운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영적으로 선교를 위해 충진되길 바란다. 이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Ted. N. C. Wilson

회장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

머리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야기

이 책은 이야기이다.

수천 년 전에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나긴 경쟁의 이야기이다. 매 세기마다 용감하고 굳게 선의 편에 서있는 몇몇의 충성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특히 이 큰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마지막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부름 받은 자들 - 선택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 오류와 반항 속에서 *몰려내시어* 진리와 충성으로 인도하는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를 알리시고 그가 정말 누구인지 알려줄 이들은 *선택*하셨다.

이 책은 이해를 요구하는 지루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의 매 장은 다른 책들이 깊게 설명할 역사를 부분적으로 가볍게 짚고 넘어간다. 만약 더 깊게 서술된 책을 원한다면 다른 책들을 읽어볼 것을 권유한다.

이 책의 목적은 개요를 제공하고 과거를 신속하게 짚고 넘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오늘의 하나님의 충성스런 자들이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은 계보의 마지막 부분임을 아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각주된 학술 논문이 아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대신 개인적이고 사람중심적이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에 집중한다.

이 책은 엘렌 화잇의 저서와 각 시대의 대쟁투를 훑어보고 나아가 대쟁투가 끝나기 수십 년 전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정을 이야기한다.

루스벨과 미가엘, 아담과 하와, 노아, 모세, 베드로와 바울, 왈덴스인, 마틴 루터, 제임스와 엘렌 화잇 -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했다.

그리고 당신 또한 포함된다.

소개

진짜 vs 가짜

당신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다.

교회 안에서 자랐던지 아니면 성인이 되고 침례를 받았던지
당신은 재림교회가 선택 받은 남은 자손이라고 배웠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을 바벨론인 다른
교회들로부터 불러내는 운동이다.

그러나 당신은 확신하는가?

정말 확실한가?

*세계기독교백과사전*은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10,000 개의
종교들을 기록한다. 그리고 그 중 한 개의 종교 - 기독교 - 는
세계적으로 33,830 개의 각기 다른 교단/종파들을 갖고 있다.

33,000 개 이상 존재하는 각 교단들은 오로지 그들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라고 믿는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 -
구글(Google) - 에 *true church*(진리의 교회)를 검색해보면
50 만개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

물문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각각 자신의 종교가 세계에서 유일한 진리의
교회라고 당신을 설득할 것이다. 다른 교단들의 신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슬람교, 불교,
심지어 성공회 교도들 또한 그럴 것이다.

그러나 과연 모두가 옳을 수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진리의 교회를
세우셨다면, 당신의 교회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가 그
교회임을 확신할 수 있는가?

당신은 이미 이 질문에 대하여 한치의 의심도 없이 대답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책은 당신의 대답을 더욱 더
확고하게 할 것이다. 선악의 대쟁투 - 진리와 거짓 간의 대쟁투 -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가끔은 당신의 교회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들의 메시지를 갖고 있으며 선택 받은 자들의 본고장인지 의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때때로 이 주장이 독점적이며, 심지어 교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 받고 진리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국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교적인 관습에 빠져들었으며 영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믿었다.

만약 당신의 교회의 역할에 대한 대답을 완벽하게 결론짓지 못했다면 이 책의 이야기는 당신이 스스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정보들을 제공할 것이다.

1950년대 중반, 미국 방송에서 “To Tell the Truth”(진실을 말하기 위하여)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그리고 2002년까지 다양한 형태로 방영됐다 취소되고 다시 방영되곤 했다.

3명의 도전자들은 자신이 특정한 한 사람임을 동시에 주장하지만 그들 중 한 명만 진짜이다. 연예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질문들을 한 후 누가 “진짜”인지 투표를 한다.

투표 후 사회자는 “진짜 [그리고 여기에 실제 인물의 이름을 쓴다], 일어나 주세요”라고 말한다.

우리 또한 지금 진리의 교회를 향해 “일어나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세계에 존재하는 10,000개의 종교들과 33,000개가 넘는 교단들을 직접 연구해야 하는가? 다행히 아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 그러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리함으로써 오히려 당신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제안을 하자면 진리를 주장하는 이 세상 모든 종교들 하나하나를 연구하기보다 단순하게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려주는 상징들을 찾아보자.

가짜들을 전부 연구하기보다 단순히 진짜를 연구하자.

미국국토안전부 비밀수사국 홈페이지에는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이라 쓰여있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지폐를 보아라. 그리고 똑같은 단위와 시리즈의 진품 지폐와 비교해라…….닮은 점보다 다른 점을 찾아라.”

물론 이 설명서를 따르려면 다른 지폐들과 비교할 진짜 지폐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진짜 지폐의 생김새를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

위조지폐부의 뛰어난 비밀수사국 직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위조지폐가 아닌 진짜 지폐를 보고 익히는데 시간을 투자한다. 그 이유는 바로 진짜 지폐를 완벽하게 알게 되면 위조지폐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이 진짜와 위조에 대하여 - 진실과 거짓에 대하여 - 어떻게 기록하는지 읽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에는 도입부가 있으니 처음부터 시작하자.

제 1 장

옛날 옛날에

“옛날 옛날에”라는 문구를 들으면 분명 어떠한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영화 “스타워즈”가 1977년에 처음 개봉했을 때 영화계 도입부분에서 “옛날 옛날, 머나먼 은하계에서는……”으로 시작하는 순간 관객들은 어떠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옛날에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다.

“스타워즈”가 대히트를 친 같은 해에 알렉스 헤일리 작가가 쓴 - 자신의 아프리카 조상들에 관한 미니시리즈- “뿌리”가 동시에 작게 개봉했다. 그리고 개봉 후 몇 주간 “뿌리”의 시청률은 최고수준이었다.

그리고 곧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계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나의 부모님께서도 그 중 한 사람이셨다.

얼마 후 내 아버지께서는 그가 연구한 자료들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싶어하셨다. 그래서 어느 주말 오후에 난 아버지의 저택에 가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 조상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살았어”와 같은 내용을 짐작했다.

그러나 내 예상은 빗나갔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로 말씀을 시작하셨다.

순간 대단한 이야기를 알려주실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긴 하루일 것 또한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은 놀랄 필요가 없다. 이 책의 내용은 길지 않다. 하지만 나 또한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내가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노아보다 훨씬 더 오래 전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오히려 스타워즈의 이야기처럼 “옛날 옛날에……멀고 먼 저 곳에서”, 즉, 천국에서 시작된다.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인생에 관한 내용이
적힌 폴턴 오슬러 작가의 책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1949) 의 글 몇 자를 인용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진실과 거짓에 관한 이야기다.

사랑과 욕심에 대한 이야기다.

빛과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다.

미가엘(예수)과 루스벨(사단)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악마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 책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시작해 이 지구가 다시 완벽하게 될
때까지의 역사를 풀어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나 그를 전적으로 따른 제자들이 있으셨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며 그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대한 진리를 용감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을
항상 갖고 계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지구에 몇몇의 충실한 자들, 부름 받고 선택된
이들, 그의 진리를 옹호하고 선포하는 이들을 항상 갖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이들을 갖고 계시며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차차 하겠다.

지금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자.

상상의 노력이 필요한 옛날 옛날로, 죄도 문제도, 악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보자. 성경의 첫 몇 장은 그러한 옛날 옛날, 멀고
먼 그 곳, 바로 천국을 알려준다.

이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에서
그가 창조한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스리신다. 셀 수 없는 정도로

똑똑하고, 영리하며 죄가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물인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안에서 생활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물들이 억지로서가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길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천사들을 창조하신다.

완벽한 질서를 보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사들은 각기 맡은 임무를 수행했다. 천사들 중 가장 높은 천사는 “빛나는 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루스벨이었다. 루스벨은 하나님 바로 앞에 서있는 “그룹천사”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 28 장 14 절에서 루스벨에게 “너는 기름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하셨다. 이어 12 절에는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더라”하셨다.

완벽한 평화와 무죄 속에 영원은 이어져갔다. 성경은 루스벨이 그가 창조된 이후 얼마나 오랫동안 하늘에서 살았는지 기록하지 않는다.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루스벨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갇게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하늘에서 더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는 천국에 오직 두 분 밖에 없었으니 이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다. 루스벨은 공평하고 솔직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성격을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곧 하나님께서 그의 자기성장과 자격, 업적 등을 깨닫고 그의 아들과 성령과의 동등한 위치에 올려주실 것을 확신했다.

자만 - 그리고 타락

에스겔 28 장 17 절에는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라 하셨다.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루스벨이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음을 의미이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잘못 포장함으로 인해 분별력이 없어졌다. 자신의

지혜와 지위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인해 루스벨은 천국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더욱 중요한 존재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자만으로 가득 차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했다.

자만심 - 자신의 중요성을 과하게 과장하는 것 - 은 남녀노소 모두를 타락하게 만든다. 루스벨 또한 결국 타락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타락하고 에스겔 28 장 15 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라며 그를 향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사야 14 장 12-14 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뿔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루스벨의 진급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가 제정신이었던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창조물일 것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루스벨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답답함과 불만을 가득 품은 채 기대했다.

하나님께서 루스벨의 승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지 않자 천사들의 왕자의 마음속은 의아함에서 실망으로 그리고 결국 화와 질투심으로 가득 찼다.

루스벨은 이 시점에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거나 루스벨한테 문제가 있는 것. 그러나 자신한테 문제가 절대 있을 수 없었기에 루스벨은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상황을 합리화했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알리는 수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시고 부당하시다는 결론을 내렸다. 루스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 너무나 큰 특권과 권위를 주시니 예수를 편애하고 계신 것이었다. 세상에 알려진 하나님의 성품에 분명 모순이 있었을 거라 믿었다. 그래서 그룹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성격에 대한 거짓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생각들은 자신에게 진실이 돼버렸다.

그 후 루스벨은 다른 천사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 잘못됐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편애와 불공평한 거짓말쟁이라며 설득하기 시작했다. 루스벨의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결국 대반란으로 확대됐다. 요한계시록 12 장 7-9 절에는 이 반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예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하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도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 장 3,4 절에는 천사들 중 3분의 1이 루스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기록한다.

그리스도와 루스벨(이제는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불림) 간의 대쟁투가 시작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바로 이 하늘의 대쟁투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사랑의 정부, 그리고 사탄과 그의 욕심으로 기반된 반항의 전쟁에 어째서 당신과 나도 관여돼있는가? 하늘의 대쟁투가 어떻게 인간에게 전이됐을까?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그들의 본사를 세웠고 영원한 증오를 갖기로 서약함과 동시에 그들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다.

성경의 첫 책 -창세기- 은 천사들만큼의 권위를 갖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로 결정하셨다고 기록한다. 창조 6째 날 창세기 1 장 26,27 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인류의 첫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에덴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집인 동산을 만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이 두 명에게 자유롭게 다가가는 것을 금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동산 정가운데에 위치한 나무 딱 한 그루에만 머물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 근처에 절대 가지 말고 이 나무에 맺는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명하셨다.

비극

결국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꿀 비극의 날이 왔다. 이 이야기를 간단히 풀어보자.

하와가 남편 아담 곁을 잠시 떠난 것은 고의가 아니다. 제 일에 충실히 임하다 어느새 혼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경고가 다시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나무에서는 뱀의 형태로 있던 사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아침과 속임수로 그리고 아담과 나무 근처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의심을 심었다.

해가 저물기 전에 이미 하와는 아담과 함께 그 열매를 나눠먹었다.

같은 날, 루스벨과 그의 사도들이 승리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동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다. 보통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 하나님을 반기면서 대답했다. 그러나 이 날 밤에는 창세기 3장 8절에 의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드디어 아담이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었나이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말인가?

우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시 편한 존재로 느껴지려면 한참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에덴에서 일어난 그 일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렵게 느껴지고 심지어

두려울 때도 있다. 그것이 바로 죄다. 죄는 우리와 우리의 창조주와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잘못된 인식을 하게 만든다.

이 순간 당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는 모른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운 존재로 알거나, 하나님께 화가 나거나 불편하다면 그 이유는 죄가 하나님의 실제 존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었다. 우리의 죄가 원인인 고통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닌 단지 엄격한 심판장이시거나 인상만 쓰는 아버지, 혹은 우리의 적으로 생각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은 우리들만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쫓겨난 루스벨린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악당 중 최악의 악당으로 보이게끔 노력한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안 좋은 존재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도록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인생에 비극, 고통, 질병, 슬픔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탓하게 만든다.

그러나 사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 거짓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가장 친한 친구로서 선고만 내리는 판사나 적과는 가장 먼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아담과 하와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나온다. 창세기 3장 15 절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즉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물을 구원하시겠다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약속이다. 그의 창조물들을 대신하여 벌을 짊어질 다른 누군가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하와, 그리고 사탄의 자손들과 하와의 자손들 사이에 적대감을 형성할 것이었다. 그리고 하와의 자손들

중 단 하나의 ‘씨앗’이 일어나 사탄의 머리를 멩들게 하고 사탄은 단순히 그의 발꿈치를 멩들게 할 것이다. 여기서 머리의 부상은 치명타를 의미하고 발꿈치의 상처는 단순한 상처로서 서로 대조되는 현상을 상징한다.

사탄의 머리에 상처를 낼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약속된 구세주로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들이 지은 죄를 뽀어지실 날이 올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모든 이들의 반란, 욕심과 자만을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죄의 대사를 죽음으로 치르실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해 그의 피와 그의 생명을 내주실 계획이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전쟁은 자만심으로 가득 찬 하늘의 천사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구로 넘어와 인류 또한 반항을 해 자신들이 선택한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곧 이 전쟁이 영원히 그리고 완벽히 끝날 것이라는 좋은 소식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쟁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방어하며 망설임 없이 그의 결을 굳건히 지킬 이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이 대쟁투의 이야기는 이러한 충성스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이 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들은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인물들이었을까?

오늘날에 그들은 누구일까?

이 세 질문의 정답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 - 성실하고
충성스런 선택 받은 자들 - 이 계셨고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은 오늘도 존재한다.

제 2 장

대쟁투 속에서 편 고르기

당신이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원고를 애쓰게 쓰는 중인 작가라고 상상해보자. 이 책이 곧 베스트 셀러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형출판사에 원고를 보낸다.

원고가 출판사에 도착하자 편집장은 책상 위에 놓인 원고를 훑어보며 ‘이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본다.

이것?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고 꽤 팬찮은 인물들, 다양한 표현과 판매율도 잘 나올 거 같다. 그러나 곧 편집장은 “이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의 원고를 결국 거절한다. 도대체 무엇을 빼먹은 걸까?

갈등.

이야기에 갈등이 없으면 읽을 가치도 없게 된다.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갈등. 주인공 대 악역, 좋은 국가 대 나쁜 국가 (선진 후진국이 아님), 영웅 대 자연 (태풍 혹은 맹수) 혹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인물(나쁜 습관, 불법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 이러한 내용처럼 모든 이야기에는 반드시 타협할 수 없는 요소가 바로 갈등이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이 지구에 사는 것이 갈등에 맞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구에 살기 위한 근본적인 현실이다. 사실 우리는 갈등에 맞서지 않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 ▶ 두 남학생이 농구시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일 수 있고
- ▶ 험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주고 받는 부부간의 싸움일 수 있고
- ▶ 서로 거절시켜 상을 받기 위해 상대방과 싸우고 있는 링 안에서 싸우고 있는 선수들일 수 있고
- ▶ 텔레비전에 나와 정치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을 일으키는 사람들일 수 있고
- ▶ 당신과 당신 내면과의 싸움 즉, 내면의 선과 악의 갈등을 항상 느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갈등이 아닌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완벽한 평화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심지어 태초에는 동물들간에도 평화가 존재했다. 갈등이 없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지구에 완벽한 평화가 다시 곧 올 것이라고 기록한다.

갈등은 불청객이다. 일탈적인 행동이자 돌연변이 현상이다. 갈등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그리고 죄의 가장 낮은 공통분모는 이기심이다. 루스벨이 그의 창조주보다 자신을 더 앞에 내세우기 전까지 죄는 존재하지 않았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 이사야 14 장
12-14 절

루스벨은 “나”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언제나 내 자신을 앞세우면 갈등이 그 결과물이 된다. 삶의 전부가 “나”에 대한 것으로 집중된다. 자아가 중요해지고 보호되고 방어되고 더 나아가 어떠한 외부적 협박이 느껴지면 자신의 1인자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 나는 싸우기 시작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성경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한다.

루스벨과 그의 창조주 간의 대쟁투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 위대한 전쟁은 최소 6,000 년동안 진행돼왔으며 모든 전쟁의 배경이다.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억만장자의 개인미술관으로 안내되어 벽면으로부터 3-4 센티미터만 떨어져있다고 상상해보자.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상대방은 앞에 보이는 것을 설명해 달라고 한다. 당신은 약간의 노랑색과 밤색 반점들이 보인다. 상대방은 당신을 몇 센티미터 뒤로 안내하고 당신은 색깔들 사이에 꽤틴이 보이기 시작한다. 드디어 몇 걸음 뒤로 더 가고 당신은 현재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돼있지만 한정판으로 나온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큰 그림을 보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루스벨(이제는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쟁투가 바로 큰 그림이다. 이 지구의 모든 갈등, 모든 전쟁, 모든 싸움은 그 큰 그림의 아주 작고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전쟁 뒤의 전쟁의 아주 작은 점일 뿐이다.

갈등은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로 여겨질 때 일어난다.

만약 “내가” 옳으면 당신은 잘못됐다.

만약 “내가” 협박을 느낀다면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할 것이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억지로라도 소유해야 한다.

죄(욕심)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는 갈등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죄를 영원히 없애고 이 지구를 다시 만드실 때에는 갈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갈등은 아주 잠시 여기에 존재할 뿐이다.

죄가 있기 전 “내편”, “네 편” 즉, “편”이라는 것은 없었다. 죄가 있기 전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 그러나 죄가 나타난 후 일부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6,000년 동안 아니면 더 오랫동안 두 개의 편, 하나님 편 그리고 사탄의 편이 존재하게 되었다.

여기서 염두 해야 할 점은 바로 제 3 팀은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두 팀만 존재하고 우리 각자는 매일 매 순간 오직 한쪽만 선택할 수 있다.

삶 - 아니면 죽음.

선 - 아니면 악.

빛 - 아니면 어둠.

진리 - 아니면 거짓.

믿음 - 아니면 의심.

사랑 - 아니면 욕심.

긍정 - 아니면 부정.

그리스도 - 아니면 사탄.

그러나 이 전쟁 속에서 전혀 다른 원칙을 갖고 항의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둘 중 한편도 아닌 “독립”적인 존재다. 사탄과 하나님간의 전쟁은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두고 나는 오로지 나 자신에게 충성적일 것이다, 나와 상관 없는 일이라며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확실히 알아두자: 이 세상에는 오로지 두 편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중간에 끼있을 수는 없다. 그 어느 누구도 링 밖에서만 지켜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옳은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연히 나쁜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대쟁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그 반대편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는 “자율”인 제 3자의 위치를 선택할 경우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또한 사탄과 함께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이야기인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간의 대쟁투는 갈등이라는 요소의 서로 다른 면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대쟁투는 우리들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부터 당신과 나,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이들이 이 갈등 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인가 - 아니면 사탄의 편인가?

우리는 진실에 충성할 것인가 - 아니면 거짓에 충심을 둘 것인가

우리는 사랑으로 살 것인가 - 아니면 욕심으로 살 것인가?

이처럼 참으로 현실적이고 간단한 선택이다.

자기 지식의 기량에 감탄하며 사는 이들은 이 내용이 “흑백논리”라고 주장하고 옳고 그름 그리고 진실과 오류와 같은 내용에는 절대법칙이 없으며 오직 회색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돼있듯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 딱 한 주인만 선택할 수 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 여호수와 24 장 15 절.

절대 오류가 없는 완벽한 진실은 존재한다.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랑은 존재한다. 두 주인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충성 할 수 있다.

흑빛

많은 양의 흰색 물감에 아주 적은 양의 검정 물감을 섞어보면 아주 연한 회색을 볼 수 있다. 검정 물감을 더 추가할 수록 전체적인 색은 더 진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어떠한 회색 빛을 만드시지 않았다. 그의 진실에는 실수가 없었으며 그의 사랑에는 욕심 한 점도 없었고 그의 빛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 요한 1 서 1 장 5 절.

대쟁투에 타협은 없다. 선과 악, 진실과 오류 사이에 “회색 빛”이란 없다. 타협 즉, 우유부단한 태도, 양다리 걸치기는 가능할 거라 생각 할 수 있지만 안 된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다.

이 책의 대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 충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지구의 역사를 보면 대쟁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서고픈 이들은 언제나 소수집단이었고 때로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그런 극 소수의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14절.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역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원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유의 의지도 함께 주셨다. 그리고 이미 아다시피 루스벨은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앞세우기를 결정해 이 선택이 하늘에 전쟁을 일으켜 사탄, 그리고 그가 속인 천사들의 3분의 1 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지구를 만드시고 완벽한 두 인간도 함께 창조하셨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해 지구에 죄가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첫 이파리들이 시든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다. 꽃들이 시들고 떨어지고 죽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하였다.” - 부조와 선지자 p. 62.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이파리들이 시들면서 아담과 하와는 드디어 그들이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아담과 하와는 후회와 절망에 빠지게 됐다. 단 한번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인해 그들은 마치 이 세상에 없었듯이 죽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셨을 수도 있다. 몇몇 또한 그들을 없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을 것을 거두도록 지켜만 보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잘못된 선택인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 사이에 개입 하시기로 하셨다. 인류에게, 개개인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선택을 할 기회를 주실 것이다.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계획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다. 그들이 이기적인 선택을 해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을 다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의 선택이 낳는 최종적 결과, 자연적인 결과인 영원한 죽음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큰 아픔을 짊어지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

그리고 죄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있을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회를 주실 계획이 있으셨다. 편을 선택할 기회, 사랑과 이기심 중 선택할 기회, 진실과 거짓, 그리스도와 사탄 중 한 쪽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아주 오랫동안 살았고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들은 이미 망가지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옆에 서있는 선택을 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의 자손들이 바로 바로 편을 고르기 시작했다는 것 또한 잘 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라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최종적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언젠가 나타날 구원자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다. 라벨의 형 가인은 그의 노동의 결과인 열매들을 제단에 갖고 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대신 자기자신의, 인간의 노력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나님께서 라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을 때 가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고 결국 자신의 동생인 라벨을 죽이는 인류의 첫 살인이 발생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설명하는 주석의 중요한 내용을 함께 보면서 2000년도 이후에 살아가는 당신과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아보자.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가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거짓 종교들이 동일한 원칙 즉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게 필요 되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발전이라 하며 그것이 인류를 세련되게 하며 향상시키며 갱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인이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속죄 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표준까지 높이려고 한다. 가인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 인류는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사단적인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행 4:12)다.” - 부조와 선지자 p. 73.

처음부터 오직 두 부류만 존재해왔다. 아벨과 그의 부모들이 선택한 부류와 가인이 선택한 쪽밖에 없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사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간의 힘을 믿는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고집이 센 자아의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본인(결국 하나님의 가장 큰 적)에게 충실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믿는 이들- 하나님에 대한 거짓정보를 알려주는 사탄을 따르는 이들만이 존재한다.

오늘까지도 이 두 부류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쪽을 선택할지에 대한 기회가 주어졌다.

아담과 하와는 선택했다.

가인과 아벨은 선택했다.

생명이 있었던 과거의 모든 이들이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 - 성실하고 충성스런 선택 받은 자들 - 이 계셨고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은 오늘도 존재한다.

제 3 장

끊어지지 않는 충신의 계보

하나님께서 대쟁투를 지고 계신가?

한 때 천사들 중 가장 으뜸이었던 루스벨은 본인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인해 마귀인 사탄으로 변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가 시작한 대쟁투를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직접 데리고 왔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대부분의 인간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었다.

사탄은 선택했다. 아담과 하와도 선택했고 나중에는 또 다시 선택을 했다. 가인과 아벨 또한 선택했다. 태초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같은 선택을 해왔다. 그리고 2000 년도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6억 5천만명의 상당수는 하나님이 아닌 그의 적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따르는 이들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소수일 것이다. 충성스런 소수들. 좁고 하늘을 향한 길을 선택하는 이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고 하나님 곁에 굳건히 서있는 이들이 있다.

이 책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충신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 오로지 사탄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굳건히 선 하나님의 충신들을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은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하나의 아들 ‘셋’을 주셨다. 아벨이 한번도 알 기회가 없던 셋 또한 그의 형처럼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리고 셋의 후손들은 대대로 하나님과 직접 건던 그들의 조상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갔다. 그리고 아담은 거의 천 년을 살면서 그가 선택을 잘못된 경험을 후손들에게 직접 들려주면서 그 잘못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지 알려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그들만의 지역을 선택해 살면서 대대로 하나님께 반항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서로 만나면서 근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얼마 안돼서 셋의 후손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충심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반항을 하는 가인의 가족을 선택했다. 그렇게 인류의 대부분이 금방 하나님의 적의 편에 서게 됐다.

그래도 “죄악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향상되고 고결하게 되어 하늘 가족처럼 산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 - 부조와 선지자, p. 84.

거룩한 자들의 계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계보.

끊임 없이 계속, 몇 세기를 이어 6,000 년동안 이어지는 계보.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계보.

성경은 이 거룩한 자들의 무리 중 초기의 인물을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이라 기록한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말씀을 비난하는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지구의 악한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동안 에녹은 그의 하나님을 더더욱 알기 위해 시간을 쏟았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기를 결심한 이들을 멀리하지 않았다. 에녹은 “거룩”해지기 위해 평생을 산속에서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사람들과 자신을 격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 점점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이 세 상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을 남겨두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도가 아니라 그의 일상 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 부조와 선지자 p. 85.

300 년동안 에녹은 그의 모든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갔고 교통했다. 그는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이 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라지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 창세기 5 장 24 절.

에녹은 변화되어 죽음의 판결을 받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게 되었다.

한편 지구에서는 에녹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그가 남기고 떠난 빈 자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싶어하셨다.

“에녹을 승천시키심으로 주께서는 중대한 공과를 가르치실 계획이셨다. 아담의 죄가 초래한 무서운 결과들 때문에 사람들이 낙담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인류에게 무서운 저주가 지워져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을 운명에 처한 이상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법령을 지킨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고 셋에 의하여 반복되고 에녹에 의하여 실천된 교훈들은 우울과 흑암을 일소하였으며 아담을 통하여 죽음이 온 것처럼 약속된 구속주를 통하여 불사 불멸의 생명이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사단은 의인에 대한 보상이나 악인에 대한 형벌이 없다는 것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신념을 사람들에게 역설하고 있었다. 그러나 에녹의 경우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히 11:6)시라는 것을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 주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며 죄 많고 부패한 자들 가운데서 살 때에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그의 모본 가운데서 그런 생애의 복됨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승천은 순종하는 자는 기쁨과 영광과 불멸의 생명을 상급으로 받고 범법자는 정죄와 재앙과 죽음의 판결을 받는다는 장래에 관한 그의 예언이 진리라는 증거였다.” - 부조와 선지자 p. 88.

에녹의 삶과 승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 ▶ 에녹의 승천은 아직 지구에 남아있는 의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 ▶ 악인들을 위한 최종 판결이 있듯이 의인들을 위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 ▶ 에녹의 삶은 죄와 반항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모든 유혹을 떨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 ▶ 에녹의 승천은 하나님의 의인들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상급이 무엇인지 보여준 작은 예시였다.

이 교훈들은 에녹이 승천 한 후 아직 지구에 남겨진 에녹의 친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한 교훈이기도 하다. 당신을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교훈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포상은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받드시* 따라온다. 그리고 에녹의 삶은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악해져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실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하지만 우리가 염두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확고한 정신만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전의 인용구를 읽어보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며 죄 많고 부패한 자들 가운데서 살 때에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사면과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두 곱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췌된 본성인 위한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한 용서와 사면이다.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능력* 또한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와 사면 둘 다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까지 죄, 즉 이기심의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늘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두 곱의 은혜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매일 은혜에 더 강하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즉 “은혜 속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더욱 더 닮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신다.

“거룩한 자들의 계보”를 더 살펴보고 싶으면 창세기 5 장을 읽어보길 바란다. 창세기 5 장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자들의 계보를 아담에서 노아까지 각 세대별로 나열해 기록했다. 이 계보를 살펴보면 에녹은 승천하기 전에 세상에서 수명이 가장 긴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두었다. 무두셀라는 믿기 어려운 숫자인 969 세까지 살았다.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아의 삶과 사역을 전부 말 할 필요는 없다. 교회를 다니는 어린이라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 년 동안 악한 세상을 향해 설교를 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이 때의 세상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빠졌다. 창세기 6 장 5 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기록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악이 선을 완전히 압도하기 전에 직접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홍수로 멸절하셨다. 홍수로부터 생존한 이들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직계 가족 오직 여덟 명뿐이었다.

인류는 새 출발 즉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쫓겨난 본성으로 인해 몇몇은 얼마 지나지 않아 노아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또 다시 사탄의 무리들은 지구에 퍼져나갔다.

하나님에게 반항을 한 이들은 잔인함, 우상 숭배, 부도덕성.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의 곁을 떠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를 만들어 그 가운데에 높고 높은 탑을 만들어 세상의 불가사의로 만들기로 했다.

거대한 바벨탑이 하늘을 향해 건축되기 시작했다. 사탄은 - 뒤에서 사람들을 결국 자기 이득을 위해 이용해 반항하도록- 바벨이 성장하는 과정에 매우 흡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탄이 쉬운 전쟁을 일으키게 지켜만 보고

게시지 않으셨다. 바벨탑이 완공되기 전, 하나님께서 일꾼들의 언어를 혼동시키므로 건축은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되었다.

“우리 시대에도 탑 건설자들이 있다. 무신론자들은 과학의 상상적 추론(推論)으로 학설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배척한다. 그들은 몹시 주제넘게도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를 비판하고 그분의 율법을 멸시하며 인간의 이성(理性)으로 충분하다고 자랑한다.” - *부조와 선지자*
123,124

탑 건설자

진화의 탑. 인간의 사고능력의 탑.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오르는 과학의 탑.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인간이 만든 도덕률의 탑. 그러나 이러한 탑도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단호하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어떠한 저항도 없이 어떠한 형태의 새로운 바벨론이든 짓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맞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바벨론은 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홍수로 인해 “기록한 자들의 계보”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받게 된다 - 그리고 찬란하게 생존을 한다. 창세기 11 장에는 이 계보를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해 가장 성공적인 계보를 이어 구약의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거인”이 기록된다: 아브람 - 후에는 아브라함으로 계명함.

이 책을 읽고 있는 이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위대한 국가”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그와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모든 것을 버리고 - 목적지도 모른 채 -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실 땅으로 향해 나아가라 하셨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탈출한 소돔 - 오로지 죄악에만 빠져 세상의 암과 같은 소돔과 이웃나라 고모라와 함께 이 지구에서 없애셨다. 그리고 물론 100 세가 된 아브라함 - 그리고 90 세 아내인 사라 사이에 - 약속된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있다.

이삭은 후에 쌍둥이 아들들의 아버지가 된다 - 야곱과 에서. 그리고 이 두 아들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를 통해 그들의 미래를 결정했다. 에서는 반항을 해 하나님의 직을 선택한다. 야곱 - 중요한 점들에서는 부족한 모습이 또렷이

나타나지만 - 거룩한 자들의 계보를 이어가게 된다. 천사와 함께 밤 새 씨름을 한 후 - 그 천사가 결국 하나님 본인이 셨고 - 야곱은 이스라엘로 계명을 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열두 지파의 아버지들이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돼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를 악한 나라들로부터 보존하고 보호하고 나누게 된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숨어 몇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널리 있는 이교도들에게 나누며 보존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서 구세주가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셨다.

아담과 셋으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계보가 - 에녹과 무두셀라,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가 -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지구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국가로 이르게 되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 - 성실하고 충성스런 선택 받은 자들 - 이 계셨고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은 오늘도 존재한다.

제 4 장

반역자들을 사랑으로 이기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 - 하나님의 능력과 성스러운 특권을 갖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 - 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 보기 위해 하나님의 입장에 서 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과학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 할 수 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의 입장에 서보자. 당신은 완벽한 우주를 창조했다. 완벽한 천사들도 창조 - 그리고 완벽한 인간들도 창조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유의 의지 - 그리고 자유의 선택을 창조했다.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원해서 나를 섬기고 숭배하는 것을 -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 - 의미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의 의지와 함께 오는 위험 또한 있었다: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선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불행히 인간은 그렇게 한다. 이 지구에 죄인들이 번식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반항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충성스런 소수인들은 당신을 창조주로 섬긴다. 초기의 믿음의 기둥들 - 나이는 700, 800, 900-은 사망한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당신은 홍수로 반역자들을 없애 다시 깨끗한 세상으로 몇몇의 충신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한다-노아의 직계가족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번식하고 지구 곳곳에 퍼져나간다 - 그리고 또다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린다.

어떻게 하면 반역자들을 다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아직 하늘에 남아 있는 천사들을 보내 그들에게 전도를 시킬까?
고집 센 악인들에게 지구에 있는 그 몇몇의 충신들을 보내 -
애원하고 전도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할까?

하나님의 방법

이 상황을 당신이나 내가 해결해야 했으면 아마 위와 같은
방법을 썼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반역자들에게 나타낼 계획이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 사랑의 힘으로 그들을
다시 되찾기로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충신들을 통해 하실 계획을 하셨다. 시간이 흐를 수록 더 이상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적은 인원의 충신들이 믿음에 없는 너무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임무를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한
국가 - 주변 이교도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복을 주시기 위해 선택 된 한 국가를
선택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대략 1800 B.C.에 그의 계획을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다. 이단과 우상숭배 그리고 배교/배신으로
둘러싸여있을 때 아브람-당시 그의 이름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충심을 다했다.

아브람의 나이가 75 살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위대한 약속을 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세기 12 장 2,3 절.

그리고 이 위대한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세기 12 장 1 절.

아브람은 하나님께 순종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의문
하나 없이 따랐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히브리서 11 장 8,9 절.

아브람은 그의 고향인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갔다: 가나안.

이 책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시대인 1800 B.C.부터 그리스도의 삶이 포함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충신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돼 아브라함으로 이어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어간다-훗날 이스라엘로 개명한다.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열두 지파의 창시자가 된다.

재림교인으로서 당신은 이미 이스라엘 국가의 긴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부조들, 선지자들, 왕들, 그리고 애굽에서의 긴 포로생활, 출애굽,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에서의 40년 생활, 바벨론 유수(幽囚),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북으로 나뉜 이스라엘.

당신은 이미 유월절과 홍해, 시나산과 성전,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배신과 회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물들: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사무엘, 다니엘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보람되는 일이 있다면 그 중 하나는 창세기 11 장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 - 혹은 부조와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와 왕을 읽는 것이다.

이번 장은 이스라엘의 역사 - 연대표와 지도자들, 날짜와 장소, 배신과 회개의 시간들-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충신들에 대한 이야기 - 아담부터 시작해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소수 충신들의 이야기를 해보자.

의미 있는 선택 받음

이제부터 몇 문단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 받은 민족-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 받은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큰 목적이 있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과 약속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그러나 이 축복과 약속들은 조건이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 할 경우 - 그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온전히 믿으면 -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경이로움이 될 것이었다. 만약 안 그럴 경우 패배를 경험하고-심지어 그들의 적들로부터 - 포로생활을 하게 될 것이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가끔 - 오로지 어떤 때에만 -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미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 완전히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창조자를 죽이는데 동참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쇠(盛衰) - 가장 큰 배신을 했을 당시 - 소수의 성실한 충신들, 하나님의 진정한 추종자들이 이스라엘에 존재했다. 이스라엘 이전에도 항상 있었고 이스라엘 이후에도 항상 존재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옛날에 해야 했던 그 똑같은 결정을, 당신과 내가 오늘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온전한 충심을 둘 것인가? 우리는 세상이, 같은 교인들이 - 심지어 우리 가족들이 -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께 충실할 것인가?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그의 교회를 위한 동일한 목적을 찾아볼 수 있다 - 당신과 나를 위한 그 계획.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드러냈어야 했다. 그들은 타락하고 사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어야 했다. 그들은 주의 포도원으로써 이방 나라의 열매와는 전연 같지 않은 열매를 맺었어야 했다...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유대 백성들의 특권이었다” - 실물교훈 285.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에게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려 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 실물교훈 290.

이스라엘의 임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 믿지 않는 반항심이 가득한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셨듯이 하나님의 품성은 그의 선하심 - 자비, 은혜, 인내심, 진리, 그리고 용서의 선하심이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은 그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에게 등을 돌린 반항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다시 되찾고 싶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국가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길 -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자기에게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유대 백성을 통하여 만백성에게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길을 마련하시고자 하셨다. 세상 열방은 패덕한 행실을 좇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써 그들을 멸절하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당신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다.” - 실물교훈 286.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께 회복시켜야 했는지 자세히 보자. 타국들의 우상숭배와 악함, 그리고 이교적인 행동들 규탄하는 방법을 통해서인가?

더 나은 것

현대에도 너무나도 자주, 심지어 유명한 설교자들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삶을 사는 이들을 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으로 죄인들을 헐박하곤 한다. 혹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분노와 불쾌감의 결과라며 손가락질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일까?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 신을 숭배하고 있다. 그들에게 우상에 대한 비난을 들려줌으로써가 아니라 그 우상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우상숭배에서 돌아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려주어야 한다.” - 실물교훈, 299.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사는 이들은 깊은 죄악에 빠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이 예전의 이스라엘이나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서 될 일인가?

아니면 세상에게 더 나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일까? 그리고 그 “더 나은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성품.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협박을 통해 이들을 다시 하나님 곁으로 부르실 계획이 한번이라도 있으셨을까? 분노와 비판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실 계획이었을까? 그들의 죄를 갖고 협박하실 계획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반항꾼들의 마음을 다시 그에게 돌리기 위한 방법을 오로지 한가지로만 선택하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다.

옛 속담처럼, 과리를 잡기 위해서는 식초보다 꿀을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것이 더럽고 못생긴 과리에게도 통한다면 분명 죄로부터 덮여있는 그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검찰을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진실을 알릴 증인들이 더 필요하시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협력만 했더라면 그의 계획은 성공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택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칭송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다. 영적으로 유익 될만한 것은 무엇이나 다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그분의 대표자가 되게 할 품성을 형성하는 데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 실물교훈, p. 288.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에 불구하고 - 하나님께서 제공해주신 무한한 자원에 불구하고 -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건에 미치지 못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수많은 축복을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국가가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지 에 대해 상상해보자:

“만일 저희가 순종했다라면 다른 나라 백성을 괴롭혔던 질병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왕성한 지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하여 저희는 제사장과 방백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다.” - 실물교훈, p. 288.

- ▶ 질병으로부터 보호
- ▶ 왕성한 지능
- ▶ 번영
- ▶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축복

일곱 개의 무서운 단어들이 그들이 최종적 실패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
- 실물교훈, p. 290.

이런 일이 - 도대체 어떻게 -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대표자로써의 고상한 특권을 인식하지 못했다. 저희가 받은 은총은 세상에 축복이 되지 못했다. 저희가 가진 모든 특권은 저희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봉사를 하지 아니했고 그들은 신앙적 지도와 거룩한 모본으로써 저희 동포들을 선도(善導)하지 아니하였다.” - 실물교훈, pp. 291, 292.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서 하나님의 계획 한 개를 이룸으로써
감당하기 힘든 축복을 받았겠지만 그들의 실패는 대참사였다.

“유대 백성들은 그들이 하늘의 총애를 받은 자들이며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로써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의 변영의 기초가 너무나 견고하게 보였으므로 저희는
하늘과 땅의 어떠한 것도 저희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불성실한 생애로 말미암아
하늘의 징벌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
실물교훈, p. 294.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관계를 끊었지만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를
섬기는 충신들이 남아있었다.

충신들의 계보는 끊기지 않았다.

예수께서 지구에 갓난 아기로 오셨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거부하고 심지어 그가 누군지 깨닫지도 못했을 때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를 환영하는 몇몇의 충신들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과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동안
그들의 창조자와 구세주인 그를 배신하기보다 죽음을 대신 선택할
자들이 언제나 있었다.

이 책은 이러한 소수의 충신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역사가 끝날 때까지의 이야기이다. 단지
추상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 -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올 해,
이 달, 오늘 - 하나님 앞에는 오로지 두 편이 존재한다:
하나님에게 성실하고 충성하는 이들 - 그리고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한 이들이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당신이 또 다시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내일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선택을 해야 한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 - 성실하고
충성스런 선택 받은 자들 - 이 계셨고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은
오늘도 존재한다.

제 5 장

잘못된 왕을 찾다

아침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 그들에게는 당신이 완전히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상상해봐라.

아니면 가족모임에 참석했는데 가족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당신이 이런 경험을 절대 안 하길 바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일을 경험하셨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 요한복음 1 장 10, 11 절, 강조 첨가.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기록한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 현대인의 성경, 강조 첨가.

“세상”이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만으로도 안 좋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께서도 그들의 창조주이셨으며 - 단지 “그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그렇다.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만으로도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마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최소 300 년동안 아주 자세한 예언들을 통해 예수께서 오실 것을 알렸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거절했다.

성경은 예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실지 자세히 기록되었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를 거절했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거절하지 않았다.

다시 정리하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잘 알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를 믿고 사랑하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손의 계보를 항상 갖고 계셨다. 처음부터 그들은 소수였다. 그들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찾아 걷는 “소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살기 위해 멸망으로 이어지는 넓은 길을 걷는다.

몇몇은 -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면 - 소수만 구원을 얻어 영생을 찾고, 대부분은 길을 잃어 최종적으로 죽어야만 그 후에 사단이 이기고 하나님께서 패배할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이 시작될 때, 이 세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 구원을 얻는 이들은 소수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은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값 없는 영생을 제공한다. 주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 베드로후서 3장 9절, 강조 첨가. 따라서 누가 영생을 받고 안받을 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를 통해 - 그들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선과 악 -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 -의 대쟁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 극적인 마지막 결전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무리에 참여할 것이다. 몇몇은 적에서 아군이 될 것이다. 끝까지 결정을 피하기만 하던 이들이 선택을 할 것이다. 결국 영생을 얻을 소수의 사람들이 적은 수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요한은 - 하늘을 이렇게 선보였다 -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 요한계시록 7장 9절, 강조 첨가.
3. 최종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대쟁투가 끝나면 예수께서 직접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 이사야 53장 11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그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어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의 백성들” - 이 지구에서 예수를 대변하기 위해 선택 받은 이들 - 이 그를 거절했다고 기록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말인가?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그들은 예언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이 언제인지 자세하게 전부 알려주셨다. 그러나 길고 반복되는 배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 받은 국가를 눈 멀게 했다. - 특히 지도자들 말이다.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었지만 보지를 못했다. 예언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으나 듣지 않았다.

루스벨이 자신을 높이 여겨야만 했던 그런 마음가짐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이 다른 국가들을 지배하고 다스려 최고의 국가가 되고 싶은 욕구로 너무 채워졌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신 위대함은 군력의 위대함이 아닌 섬김의 위대함이었다.

물론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욕구에 맞게 예언들을 해석했다. 그들은 부모가 방 하나를 얻기 너무 가난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밖에 없었던 빈곤하고 겸손한 메시아를 원하지도 찾지도 않았다. 그들은 정복할 수 있는 - 군력을 이끌고 그들을 악독한 로마인들로부터 구원할 - 왕을 원했다.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를 찾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놓쳤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놓치진 않았다.

뿔뿔은 올바른 왕을 찾고 있었다.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들판에 있었던 선한 목자들 앞에 나타났다. 놀라움에 벅차 그들은 갓 태어난 새로운 왕을 보기 위해 갔다. 동방박사들은 밤하늘에 떠있는 큰 별을 보고 그것을 따라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으로 가서 경배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를 따르는 소수의 충성스런 자들이 있었다. 그의 부모, 침례 요한 그리고 그의 말씀에 반응을 한 한 몇몇이 있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나사로, 열두 제자.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기적들을 목격하고 성령에게 마음을 연 선한 마음을 가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 이들이 신실한 자손들의 깨지지 않은 계보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예수의 사역의 절정인 그 어두운 금요일,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광란한 무리 속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사형을 외치지 않았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고 그 때 그의 발걸음은 올바르게 진리,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했다. 로마 군인 한 명은 그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선택을 했다. 그리스도 옆에 같이 매달려있던 죄수도 -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서있던 많은 이들 또한 같은 선택을 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몇 명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알 것이고 - 우리가 알게 될 때 분명 우리는 놀랄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을 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기 위해 다시 승천하셨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새롭고 다른 종류의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실 것이었다. 이번에는 한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다짐한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만드셨다.

예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었다 -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아래 예수의 이름을 이어나갈 것이었다. 예수에 대한 진리와 사랑이 이 세상에 삼시간에 퍼질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와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사단과 겨룰 것이었다. 오류가 스며들 것이다. 주변 세상과 타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국가에 또 다시 예수를 따르는 숫자가 소수가 될 때까지 우상숭배와 배교, 이교적 행위 등에 빠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지 그들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면 참 슬프다 - 우울할 정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이스라엘인 그의 교회의 역사 또한 살펴보면 이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살펴보면 번쩍 정신이 들 것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한다: 가장 어두울 때 - 배신의 끝에 도달했을 때 - **항상, 언제나** 바알 앞에 무릎을 절대 꿇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존재했다. 교회의 역사 또한 그들이 가장 타락을 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

우리는 이제 다시 기독교 교회의 탄생과 초기 시절을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 분명 발견하겠지만 -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초기에 하늘로 가는 길을 이탈하여 배신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 그 때의 비극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언제나 옳은 쪽에 굳건히 섰던 소수의 신실한 자들을 발견하고 기뻐하자.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조상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깨지지 않는 강한 고리들이며 우리 또한 이들처럼 될 수 있다.

계속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65억의 사람들은 대쟁투 속에서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하고 있다. 직접적인 선택, 혹은 수동적인 자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극적으로 잘못된 편에 서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존재한다.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다.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그의 존재를 위해 살 것이다.

당신은 - 후회 없이 - 이 대쟁투 속에서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였는가? 만약 못했다면 왜 미루는가? - 오늘 선택하지 않겠는가?

만약 선택을 했다면 오늘을 통해 이 세상과 우주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선택을 알릴 수 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 - 성실하고 충성스런 선택 받은 자들 - 이 계셨고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은 오늘도 존재한다.

제 6 장

폭풍처럼 번지는 불!

나는 젊은 시절에 매 여름마다 오리곤 주의 숲 - 미국의 태평양 연안 북서부 -에서 벌목하는 일을 했다. 유난히 덥고 건조한 8월 한 날 오후에, 내가 서있던 곳으로부터 대략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케이블 선들이 돌에 부딪쳐 숲의 마른 풀 위에 작은 불꽃을 일으켰다. 곧바로 불길의 터졌고 사방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나는 불을 끄려고 재빨리 가서 내가 쓰고 있건 철모와 윗도리를 벗어 불길을 향해 마구 흔들었다. 그러나 불길은 이미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소용돌이를 치면서 커져만 갔다.

모든 일꾼들이 벌목을 멈추고 불길을 사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날은 무척 더웠고 풀들은 너무 건조했고 나무들도 너무 말랐었다. 저녁이 될 때는 큰 비행기들이 수십만 미터의 면적에 이미 퍼진 불 위로 하늘에서 분홍색의 발화 지연체를 뿌리고 있었다. 불이 완전히 꺼지려면 며칠이 걸릴 것이었다.

그 날 이후로부터 나는 오순절을 생각할 때마다 그 때 오리곤 주에서 일어났던 불 사태를 항상 연상케 한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3년동안 사역을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선택 받은 자들인 이스라엘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믿지 않는 이방인을 향해 전도하려고 하지도 않으셨다. 물론 그는 호숫가와 산상에서 여러 가지 비유 - 그의 영적인 하늘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한 짧은 이야기들 - 를 알리셨다. 그러나 그는 따로 전도회를 열지 않으셨고 지구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세상을 다시 이겨내려고 하시지 않으셨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

대신 예수께서는 그를 위해 생계를 포기하고 3년동안 그를 따르는 - 그에 대해 배우기 위해 - 열두 명의 단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 예수께서는 그를 필요한 모든 이에게 불구와 장님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직접 그들이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랑을 통해 전도하셨다.

열 두 명 각자의 마음에 불꽃을 심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아직 불길로 타오를 만큼 메마르고 목마르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 마르지 않은 녹림과 같았다. 그리스도의 전도가 최고의 시점인 십자가에 이르렀을 때 열두 명 중 한 명은 그를 배신했고; 한 명은 그를 부인했다.

그러나 한 명을 제외한 그들 모두의 마음에는 사랑이 아주 조용히 조금씩 마음속에서 계속 타고 있었다. 삼일 후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음의 불길은 더더욱 커져갔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의 선택 받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그러나 승천하시기 전, 그가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후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를 통해 이기심으로부터 마음을 방화하기 위해 준비했다. 그들은 약속된 성령을 청하며 기다렸는데...

갑자기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사도행전 2장 2-4절.

오순절!

불의 혀가 그들에게 “임하여” 3년 조금 넘게 그들의 마음속에서 꾸준히 타오르고 있던 불과 함께 하나가 됐다. 우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을 만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순수한 사랑의 힘과 열정/열매 - 세상을 다시 그들의 부활하신 주와 구원자에게 다시 이끌기 위한 절박함, 열정, 그리고 멈출 수 없는 확신으로부터 - 사로잡혔다. 다락방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성령이 이끄시는 힘으로 설교를 하여 그가 끝났을 때, 삼천 명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탄생했다. 그리고 그들의 가속도가 세상을 향해 너무 빨리, 그리고 가차없이 퍼져나가 곧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 사도행전 17장 6절. 이라며 불평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스라엘 - 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강한 매력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세상 사람 모두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스도의

사랑 -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죽음을 보여주셨듯이 - 이 그 어떤 것도 나타낼 수 없는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을 녹였다. 자아를 파괴했고 자존심을 험오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는 - 그의 가르침과 본보기인 삶을 통해 - 사단의 거짓말을 다 들어냈으며 반항한 그의 자녀들을 다시 자신에게 오기 위해 하늘 아버지를 높이셨다.

안정된 불길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오순절은 마치 길고 화려하고 자욱하게 피어 오르는 토치램프의 노란 불처럼 걸잡을 수 없는 감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조절되어 희고 푸른 불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탈 수 있도록 조절된 감정이었다. 그 하얗고 뜨거운 오순절의 불은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온전히 계실 때 생긴 결과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 그들 또한 다른 이들이게 그 불씨를 전할 사랑의 불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불씨는 또 다른 불씨를 일으켜 집에서 집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또 염두 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이 세상이 노래나 시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흔한 사랑과 같이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기 위해 주는 사랑이 아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감정이 아니다.

빠른 열병이 아니다.

힘든 일이 닥칠 때 - 설렘이 사라질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냈을 때는 십자가에서였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절대적이며 완전한 자신의 희생이었다. 비록 반항하지만 - 그리고 그의 존재를 없애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물들을 사랑하셨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고 - 예수께서는 그의 삶을 내놓아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셨다.

습격

사단의 최후의 멸망은 십자가에서 봉인됐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었다: 그와 그리스도 사이에 일어난 대쟁투를 패배할 것이었다.

만약 그가 다른 세상에서 초 강력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면 그 계획은 이제 불가능했다. 그는 이제 치명상을 당한 상태 - 레인덕 적군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 숨이 붙어있는 한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 교회 - 과 겨룰 것이었다. 사단은 총력을 다해 이기심과 거짓으로 공격하고 변성하고 있으나 아직 어린 교회를 무너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자들은 사단의 공격들이 뻔히 보일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우선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의 사역을 행할 때, 이렇게 경고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 사도행전 20장 29-21절.

사단은 어린 교회를 밖에서 - 그리고 안에서 - 공격할 것이었다. 외부에서는 맹렬한 늑대들이 와 어린 양들을 공격할 것이었고 내부에서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었다.

어그러진 말?

바울이 또 다른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더 자세히 썼다: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 디모데후서 4장 3,4절.

바른 교훈 vs 허탄한 이야기.

진실 vs 거짓.

진실과 거짓 간의 투쟁 - 바른 교훈과 거짓 교훈 - 이 어느 교회에서 너무나도 표명돼서 바울은 가장 강한 어조로 그들을 꾸짖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버가모	서기 313년부터 대략 서기 538년
두아디라	서기 538년부터 대략 서기 1517년
사대	서기 1517년부터 대략 서기 1798년
빌라델피아	서기 1798부터 대략 서기 1844년
라오디게아	서기 1844년부터 종말

이 책의 나머지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각 교회의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다음 장은 일곱 교회 중 첫 세 개: 에베소와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 다음은 두아디라 상징 아래 지나간 암흑시대를 겪은 교회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 다음 상징인 사대 속의 종교개혁을 볼 것이다. 종교개혁부터 1844년까지 우리는 역사상 “대부흥 운동”이라 알려진 -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844년부터는 남은 무리들이 일어서며 - 이 책의 마지막 장들에서는 이 남은 무리들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다음 장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은 당신과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 왜냐하면 우리에게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깨지지 않는 신실한 이들의 족보를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특권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돌아선 자녀들을 어떻게 다시 돌아서게 하기 위해 우리를 매일 매일 어떻게 사용하실 지에 대한 내용들이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왜 이 곳에 있는 지를 알기 위한 것이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당신까지 - 그리고 나까지 - 내려오는 족보가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대략 6000년 동안,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깨지지 않는 신실하고 충성스런 백성들을 구축하셨다.

나는 이 사슬의 강한 연결고리가 되고 싶다 - 그러므로서 다른 이들 또한 나의 고리에 연결되는 또 다른 고리가 되어 대쟁투가 끝날 때까지 이 사슬이 조금 더 길고 길어지길 원한다.

친구여, 분명 대쟁투는 끝날 것이다.

곧 끝날 것이다 -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 - 성실하고
충성스런 선택 받은 자들 - 이 계셨고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은
오늘도 존재한다.

제 7 장

비여, 내려라

역사는 그가 실제로 불을 저지른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확실히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초기의 책임을 그에게 물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하다.

서기 64년, 로마가 14 개의 지역 중 4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전부 불바다로 휩싸였을 때 황제- 네로(서기 54-68년) - 가 직접 도시에 불을 냈다고 소문이 돌았다. 또한, 불이 계속 일어났던 그 한 주 동안, 네로황제는 언덕 위에 앉아 도시가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수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소문도 돌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가 불에 타는 동안 네로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는 전설이 남았다 - 물론 당시에는 바이올린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이는 불가능했다.

시민들의 의심을 돌리기 위해 네로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로마 사학자 택티쿠스에 의하면:

“따라서 네로는 이 소문을 없애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이들을 가장 혐오스러운 이들로 지목하여 그들이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네로의 희생양으로서 이들은 로마에 들고 도는 여러 소문들을 잠시 잠재우기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이들의 혐오?

도대체 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을까?

교회의 창시자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거짓혐의로 인해 일어난 일인 것처럼 - 마찬가지로 그를 따르는 이들에 대한 비슷한 거짓말들이 퍼질 것이었다. 선과 악의 대쟁투, 그리스도와 사단간의 대쟁투의 승리는 이미 예수께서 갈보리 산의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도다”라고 외치셨을 때 사단의 최후의 멸망이 결정되었다.

비록 사단의 최종적 운명이 그 어두운 금요일 밤에 결정됐지만 아직은 한때 하늘의 가장 높은 천사와 그의 창조주간의 해결되지 않은 다른 쟁점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공평성, 그의 법, 그의 정부, 그리고 그의 성품에 대한 의문은 아직 안 풀렸다.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 곁인 천국으로 돌아갔을 때, 사단은 자신의 만족할 줄 모르는 분노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퍼부었다. 예수께서 팔레스타인의 도로를 걸으셨을 때 사단은 예수에 대한 악독한 소문들을 일으켰다. 이제 그는 똑같은 행동을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행했다.

소문은 로마의 불길처럼 빨리 퍼졌다. 마지막 만찬 예식 행위는 인신공회 신인행위로 잘못 인지됐다. 안식일의 휴식은 게으름으로 고발됐다. 그리스도인들이 격렬한 주지욕립과 다른 부패한 행동들을 했다고 소문났다.

그래서 네로는 사람들이 그를 로마의 거대한 불 사건의 주범이라고 의심을 할 때 그 의심을 자기 자신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당시에 살던 사학자들에 의하면 사실 로마의 불사건의 책임자로서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대적이라는 생각이 더 커서 그들에 대한 핍박이 더 커진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핍박은 최악이었다.

택티쿠스는 다시 말한다: “그들은 야수들의 껌질을 입고 개들로부터 찢겨 죽임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박혀 죽고, 매일 해가 지면 어둠을 없애기 위해 그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밤하늘을 밝히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햇불로 사용하기 위해 태웠다. 십자가에 못박혔다. 개들로부터 죽을 때까지 살이 찢겼다. 정말 공포 그 자체였다.

엘렌 G. 화잇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과 음부(陰府)의 권세는 전력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이교(異敎)는 만일 복음이 승리를 얻는다면 그들의 신전(神殿)과 제단은 일소(一掃)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 그러므로 이교는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고자 전력을 기울였다.” - *각 시대의 대쟁투*, P. 39.

구주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사도 시대의 교회에 밀려올 폭풍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또한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장차 올 암흑과 박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칠 맹렬한 폭풍을 보셨다. - *Ibid.*

예수께서는 감람산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 마태복음 24 장 9 절.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는 네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몇 세기 이후까지 계속 지속됐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네로의 통치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최소한 10 번 있었고 그들에 대한 박해는 네로의 계승자들에 의해 지속됐다:

- ▶네로 (서기 64 년)
- ▶도미티아누스 (c. 90-96)
- ▶트라야누스 (98-117)
- ▶하드리아누스 (117 - 138)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161-181)
- ▶셉티무스 세베루스 (202-211)
- ▶트리선의 막시무스 (235 - 251)
- ▶데큐스 (249-251)
- ▶발레리안 (257 - 260)
- ▶디오클레시아누스 / 갈레리우스 (303-311)

“바울이 순교 당한 당시의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는 그 정도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후 몇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죄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았고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들었다. 그들이 일반 사회의 미움과 의심의 대상이 되자 밀고자들은 이(利)를 얻기 위하여 무죄한 사람들을 무고(誣告)하였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 종교의 적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로 정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거나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투기장(鬪技場)에 던져짐으로 개에게 찢겨 죽은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처형은 축제 때 자주 오락거리로 삼아졌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였고 그들의 죽음의 고통을 보고 크게 웃고 손뼉 치며 기뻐하였다.” - *각 시대의 대쟁투* p. 40.

이 중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 히브리서 11장 36-38절.

이러한 끊임없는 박해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좌절시키는데 성공했나? 그들이 경험한 공포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나? 너무 낙심하여 결국 포기했나?

“그리스도 교회를 멸하려던 사단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다.... 그들은 패배로 정복하였다.” - *각 시대의 대쟁투* p. 41.

그리스도의 보혈은 씨앗.

터툴리안은 이렇게 기록했다: “당신들이 우리를 더욱 죽일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늘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씨앗이다.”

사단의 계획은 실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적에 대해 인정해야 할 것은 바로 그는 명칭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가 창조되었을 당시에 그에게 주어진 지능의 축복은 그가 자만심으로 인해 타락했을 때 사라지지 않았다. 사단은 단지 그의 지능을 악을 행하는 데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다.

사단은 계획을 바꾸어야만 했다.

“큰 원수는 폭력을 쓰므로 손해를 본 것을 계교를 써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 박해는 그치고, 그 대신에 세속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놓이게 되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중요한 다른 진리들은 거절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노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자각하거나 회개 혹은 마음의 변화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일치하기 위하여 먼저 양보하였은즉 그리스도교측에서도 그만큼 양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교회 안에 들어온 타협 정신으로 교회는 무서운 위험에 봉착했다. 투옥, 불, 칼 등은 이것과 비교할 때 축복이었다.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경우에도 굳건히 서서 전혀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일부를 버리거나 변개하여, 그리스도교를 부분적으로만 용인(容認)하는 자들과 결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온전한 회개로 이끄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깊은 변민의 시기였다. 그리스도교의 가면을 쓴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들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였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그들의 표준을 낮추는 데 동의하였으며 그리스도교와 이교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졌다.”

- 각 시대의 대쟁투, pp. 42, 43.

박해는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러나 타협? 우리의 적은 이 부분에서 크게 성공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의 상징 하에 교회의 시작부터 교회의 창시자의 재림까지의 역사를 전부 기록한다. 그리고 이미 이 전장에 언급하였듯이, 각 교회의 시작과 끝나는 날짜는 학자마다 전부 다르지만 첫 세 개의 교회의 시기는 아래와 비슷하다:

에베소	오순절부터 대략 서기 100년
서머나	서기 100년부터 대략 서기 313년
버가모	서기 313년부터 대략 서기 538년

에베소

일곱 교회 중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살펴보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 요한계시록 2장 15절.

우리는 각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내용을 일일이 단어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이 책에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내용이다. 그러나 첫 편지에 대해서는 이만큼은 알아두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인내”를
 인정하신다는 것이다.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죽음보다 더 강하게
 사랑하기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땀방울을 견뎌냈다.
 그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을 다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몇몇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그들의 지도자와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다. 몇몇은 예수와의
 관계의 가치를 잊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은 너무나도 자주 생기는 일이다. 신혼부부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불길에 휩싸여서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해준다 - 심지어 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상대방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다. 그러나 시간과 스트레스 그리고 무심함은 이 관계에
 깨닫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변화를 가져온다. 처음 사랑의 불이
 서서히 꺼지면서 일거불만이 남을 수 있다 - 혹은 차디찬 숲과
 재만 남을 수 있다.

어쩌면 첫사랑의 열정과 강렬함이 평생 지속될 거라 생각은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좋은 부부관계는 점차 더 지속 가능한
 다른 관계로 변하기 마련이다 - 더 안정적이고 서로에 대한 깊은
 고마움과 ‘처음 사랑’ 보다 더 영원할 강하고 뜻 깊은 헌신과
 결속력이 생긴다.

그러나 아쉽게도 “첫사랑” 이 식으면 지루함과 짜증, 무관심으로 자주 이어져 타 죽은 숫만 남긴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문제가 많은 관계는 보통 서로가 예전에는 노력 없이 서로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다시 서로에게 주는 것이다.

대략 서기 100년쯤 - 에베소 교회의 끝 지점에서 - 박해는 이미 진행 중이었고 어떤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반면 어떤 이들은 그들의 처음 사랑을 잊고 현재에 단순히 안주하는 모습을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께서는 경고할 필요성을 느끼셨다.

교회의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경솔하게/태평스럽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이들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처음 그 때의 열정을 다시 가지라고 호소하셨다. 서머나가 곧 시작되면서 그들은 반드시 그 처음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서머나

서머나 - 대략 서기 100년부터 313년까지 존재해온 이 교회-는 박해가 가장 심할 때 존재했던 교회이다. 각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 중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로 보내진 편지에는 그들을 질책하는 내용이 없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 요한계시록 2장 9, 10절.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죽임 받을 자들에게는 분명 그들의 주께서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도다”를 다시 상기했을 때 안위와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그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지도자는 너희들이 곧 무엇을 경험하게 될 지 안다고 했다. 너희들 중 몇 명은 너희들의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 옥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다. 너희들 중 몇 명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죽을 때까지 나에게 신실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예수께서 서머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마지막 날의 교회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약속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그를 따르는 몇몇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 중 몇몇일 수도 있다.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이들에게도 하시는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하셨다. 물론 세기 초에 여러 로마 황제들의 지도아래 박해가 간간히 일어났지만, 가장 피를 많이 흘리고 극심한 박해가 있었을 때가 서기 303년부터 313년, 즉 10년동안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가 통치할 때 일어났었다. 성경의 예언들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1년은 1일’ 법칙을 사용하면 (민수기 14장 34절; 에스겔 4장 6절 참고.) 10일을 10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버가모

이 때의 교회는 사단이 박해에서 타협으로 그의 수단을 변경할 때이다. 서기 313년부터 538년까지 그리스도교와 이교도가 너무나도 얽힐 때였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교회가 그리스도교를 초기교회가 처음 들어본 관습과 교리들을 알리며 압도할 때였다. 결국 교회와 “국가”(정부)를 나누던 선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콜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

요한계시록 2장 12-15절.

또 다시, 이 편지의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의 순교까지 결심한 그들의 신실함에 대해 다시 상기시켰고, 그러나 그들의 순결한 교리에 대한 타협을 견책하셨다. 그들은 오류를 진리 대신 받아들였다.

서기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소위 “개종”을 했을 때 그리스도교를 국가 종교로 선포했을 때부터 교황의 완전한 권위가 538년도에 세워졌을 때까지 그리스도교에는 꾸준한 타협이 이루어졌다. 성경의 제 칠일 안식일은 일요일 안식일로 위조됐다.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권위였던 성경은 인간의 문화로 대체됐다. 종교의 자유는 이단으로 지명됐다. 구원은 더 이상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얻는 상품이 돼버렸다.

사단이 박해를 통해 그리스도교들을 멸망하는데 실패했을 때 그는 그의 계획을 타협으로 돌렸다. 그러나 사단의 계획이 바뀌었다고 해서 박해를 다시는 안 할 것인가?

터무니없는 소리다.

“오늘날 교회가 주의해야 할 더욱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 3:12)고 말하였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에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p. 48.

만약 그 초기 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을 타협으로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면 - 그들이 굳건히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라면 - 위 글의 내용처럼 사단은 다시 핍박을 통해, 혹은 더 심한 핍박을 다시 시작했을 것이다.

왜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핍박이 오늘날에는 없을까? 왜냐하면 타협이라는 계획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단지 교회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대한 무관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죄와의 타협).

모든 재림교인들은 마지막 비가 내릴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대부흥이 일어날 것도 잘 안다. “초기의 신앙심”이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박해는 또 다시 시작될 것이다. 또 다시 고난의 시간이 올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냈던 - 그리고 그 이상의 모든 것- 것들을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몇몇에게는 이것은 공포다. 우리 모두는 그 어떠한 핍박과 죽음 속에서도 진리와 진리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굳건히 설 힘이 있을지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우리는 고문을 이겨낼 수 있을까? 굶주림을 견딜 수 있을까? 감옥살이를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필요할 때 나타나는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 고린도후서 12장 9절.

오늘 - 이 순간 - 당신은 핍박과 죽음을 위한 은혜가 부족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어보시고, 허락하고, 심지어 이러한 일들을 맞서고 있는 당신에게 감사할 때, 오직 그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한지는 그 때 우리의 신실함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 당신이 얼마나 신실한지 - 는 우리가 미래에 얼마나 신실할 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에베소와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갖고 계셨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이 지구의 종말까지 깨지지 않을 그 족보에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었다. 당신과 내가 그 끊어지지 않는 선의 연결고리들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될 때가 올 때, 우리는 굳게 서길 원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는 무엇일까?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과의 가장 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오늘 - 내일 - 그리고 매일 말이다.

컨트리 송 가수 조 디 메시나의 노래들 중 히트친 곡 중 이런 가사가 있다. “내일을 또 다른 하루이다... 그리고 난 여차피 목이 마르다...그러니 비여 내려라”.

재림교인들 중 곧 일어날 부흥에 대한 희망을 위해 위 가사와 공감하고 자기 삶에 적용 시킬 준비가 되어있는가?

맞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다. 주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 비를 내려주소서 - 늦은비.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 - 성실하고 충성스런 선택 받은 자들 - 이 계셨고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은 오늘도 존재한다.

제 8 장

광야의 여인

할리우드의 영화 산업은 파도를 타는 서퍼와도 같다 - 그 다음 큰 파도를 항상 찾는다.

만약 종교적 성향을 띤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되면 영화계는 얼른 돈을 벌려고 기회를 잡는다. 책 *레프트 비하인드*가 세계적으로 출판기록을 세우고 있었을 때, 미국 배우 벨 김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Passion of Christ*)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성공했을 때 다른 제작자들은 영화 *다빈치 코드*와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을 제작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할리우드는 절대 제대로 영화를 제작하지 않는다. 일부로 너무 감정주의적 경향을 나타내거나, 잘못되거나 반성서적인 “종교”를 노골적으로 판매한다 - 혹은 판타지로 해석한다.

만약 영화 제작사들이 진심으로 종교적인 영화를 통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 한 순간도 놓칠 수 없는 대본과 스크린의 컴퓨터 그래픽 계의 큰 도전을 하고 싶다면 - 성경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들을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당연히 그들은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하기 위해 이야기를 바꿀 것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용과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채택업인으로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알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매우 훌륭한 내용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상상의 고화질의 대형 와이드 스크린을 켜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영화를 다시 살펴보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을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좋은 작가들은 “플래시 백”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옛날에 있던 내용을 언급하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던 이야기를 잠시 멈추는 기술이다. 사도 요한 - 요한계시록의 작가 - 은 진정 좋은 작가였다. 위 성경 절을 보면 요한은 용이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고 기록한다.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지만 나중에 요한은 “하늘의 별”들이 지구로 던져졌을 때로 플래시 백을 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 요한계시록 12장 7-9절.

용의 천사들 - “하늘의 별 삼분의 일” - 은 용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다.

위 3개의 구절은 선과 악간의 대쟁투 초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용이 (떨어진 천사 루스벨 - 마귀, 혹은 사단으로 분명히 제시돼있다.)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하고 그와 그가 거짓말로 속인 하늘의 천사들 삼분의 일은 미가엘(예수)와 싸웠다.

광야의 여인

그러나 용인 사단은 지구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전쟁을 계속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연구하면 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선한 여자를 발견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아주 악한 여자가 등장한다.

지금 이야기에서는 여자가 곧 해산하고 있고 용은 이 여자가 해산을 하는 순간 그 아이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은 기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와 그의 아이를 보호하신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 요한계시록 12장 5, 6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아들이다 - 하늘에서 마귀가 싸웠던 바로 그 미가엘이다. 이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 성인으로 자라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삶을 살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다. 그 후 용은 오로지 여자 -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세우신 교회 - 에게 집중을 했다.

요한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고, 하나님께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양육했다고 기록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 요한계시록 12장 13,14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 천이백육십 일. 이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시간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서는 하루가 일년이다(민수기 14:34; 에스겔 4:6 참조). 그리고 예언을 계산하면 360일이 곧 일년이다.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천이백육십 일(1,260)은 1,260년이다. 성경절을 비교해보면 “한 때”는 곧 일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 때”(360일) 더하기 “두 때”(2 x 360일, 혹은 720일) 더하기 “반 때”(180일)은 1,260일이다 - 수학과를 졸업하신 분들, 맞습니까?

6절에 나오는 “천이백육십일”은 15절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동일하다..

여자는 광야에 1,260년 동안 있을 것이었다.

자 이제 더 흥미로운 부분을 살펴보자. 이번에는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 다니엘 7장 25절.

여기서 언급된 “그”는 열 개의 뿔을 가진 위대하고 무서운 짐승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짐승이 얼마 동안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인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이다. 많이 본 숫자이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 모두 1,260년의 기간을 예언한다. 다니엘은 이 시기에 성도들은 괴롭힘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기간에 여자가 괴롭힘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한다. 여자. 교회. 성도. 모두 같은 사람들이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면 1,260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몇 가지를 찾아 볼 수 있다.

- ▶ 성도들(혹은 여자)은 핍박 받는다.
- ▶ 여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으심을 받는다.
- ▶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위대한 권력을 가질 이가 있다.
- ▶ 이는 성도들을 핍박한다.
- ▶ 그리고 이 권력은 “시간과 법률”을 바꾸려고 한다.

대부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성경을 공부한 이들은 1,260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이들 중 한 명이라면 이 위대한 짐승의 권력은 사도그리스도교와 이교가 연합된 힘이고 이 힘은 곧 교황권력이 일어나는데 도움이 된다.

로마의 주교의 커지는 세력

처음에는 “주교” 혹은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리더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중심세력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지역에 위치한 교회가 점점 강해졌다 - 그리고 그 주교 또한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 이는 로마에 위치한 교회이다. 다른 주교들은 이 교회의 관습을 바라보며 지도를 구했다 - 혹은 그 주교의 지도를 구했다.

우리가 이미 앞장에서 봤듯이 - 교회에 이교가 들어설 때 황제의 고향의 교회가 제일 크게 성공하고 있었다. 콘스탄틴 황제가 다스리던 4세기 초에 그리스도교는 국가종교가 되었다 - 아니면 그리스도교와 ‘비슷한’ 교회였다. 왜냐 하면 이 때 교회는 수많은 이교적 교리와 관습을 받아들였고 이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종교였다.

주교의 권위와 힘 - 혹은 *papa*(교황) - 은 로마에서 꾸준히 커져만 가 그는 다른 그리스도교 교회에게 칙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서기 533년, 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주교가 “모든 가톨릭 교회들의 우두머리”로 임명했다. 그러나 이 법령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로마제국에서 없어야 할 세력들이 존재했다. 그 세력들은 538년에 무너뜨렸고 이후부터 - 1,260년동안 - 교황세력이 최고였다.

현재 장 - 그리고 이 다음 장 - 은 이 1,260년 기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책을 처음부터 읽었다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1,260년 기간에는 이 중 두 개의 교회가 포함된다: 서기 538년부터 1517년 까지 두아디라, 서기 1517년부터 1798년까지의 사대교회. 지금은 두아디라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9장은 사대에 대해 볼 것이다.

서기 538년이 되면서 로마 교회는 슬프게도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관습으로 가득 찬 시스템이 돼버렸다. 인간적인 관습과 교황의 칙령이 성경보다 더 권위적이 됐다. 사제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제들을 통해서였다. 구원은 종교적 행위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연옥, 사치, 성모숭배, 물을 뿌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세례. 베드로는 교회의 창시자였으며 무류성(無謬性), 미사, 화체설(化體說), 고해성사, 우상숭배 - 이러한 잘못된

늘어났다. 모두 비성서적이다.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다.

이 모든 거짓이 슬픈 일이라면, 더 슬픈 사실은 바로 로마교회가 이러한 가르침과 관례들 그리고 의지를 강제로 도입하고 있었다. 이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박해 받고 결국 수많은 교회들을 파괴했다.

그러나 서기 538년부터 교황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1798년까지의 암흑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실한 이들을 갖고 계셨다 - 겸손하지만 박해를 받을지언정 단호하게 주께 충성을 다하는 제자들을 갖고 계셨다. 고문과 죽음을 맞이할 지라도 말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믿을 것이었다. 그들은 로마교회에서 인간이 만든 일요일 안식일이 아닌 하나님의 제 칠일 안식일을 끝까지 지킬 것이었다. 그들은 성경을 - 오로지 성경만이 - 그들에게 권위였으며 틀리기 쉬운 인간의 판단으로 세워진 법령과 관행들을 믿지 않았다. 구원과 침례, 혹은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진실을 바탕으로 믿었다.

이들이 포위당했을 때 이 충신들은 “광야”로 도망쳤다. 이 신도들은 - 교회는, 여자는 - 산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들을 은신처로 삼았다. 당시 사단의 추적전을 보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 요한계시록 12장 15,16절.

땅과 물

물이란? 성경 예언에서 물은 사람 - 인구가 밀집된 장소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참고.) - 를 뜻한다. 뱀, 즉 용은 여자를 향해 “강 같은” 물을 보냈다. 수많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악한 용의 입에서 나올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땅”은 핏박하고 추적하는 악한 이들을 삼켜버렸다. 만약 물이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땅”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지역을 상징한다.

핍박이 가장 심했을 때 하나님의 진실된 제자들은 외진 산들에서 은신처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1,260년이 끝나기 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종교적 핍박을 피해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나아갔다.

1,260년들이 시작되자 로마교회는 그들에게 새로 주어진 권력을 독점하면서 전 세계를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기 위해 그들의 가르침과 관례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르기 위해서 그들은 몇 세기 동안 진행된 박해를 방법으로 다시 삼았다.

그러나 하나님께 성실하고 충성스런 이들로 이루어진 끊어지지 않는 줄은 이 모든 것을 겪고도 끊어지지 않았다. 이 모든 암흑을 겪은 와중에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들 중 알비파와 발도파의 실화를 살펴보자. 광야에 있는 여자? 이들이야말로 로마 교회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유럽의 가장 높은 산으로 피신하면서 이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 이들은 더 이상 교회의 비성경적인 교리를 양심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었다.

알비파 (남부 프랑스에 위치한 도시 ‘알비’의 이름을 따 - 오늘날의 툴루즈에서 대략 35km 떨어진 곳)로 알려진 이들은 인간적인 사제직, 성인(聖人)과 우상숭배, 성경을 넘는 교황권과 같은 가톨릭의 가르침을 반대했다. 서기 1167쯤 프랑스 남부의 인구는 대부분 알비파로 구성됐다.

알비파는 오늘날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진리를 전부 믿고 가르쳤을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어떤 부분들과는 다르게 믿었을까? 맞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를 배신할 바에는 죽음을 선택했다.

가톨릭 교회는 알비파를 그들의 권위와 권력에 큰 위협으로 느껴져 힘으로 그들을 대응했다. 1208년에 아이러니한 이름을 가진 교황 이노첸시오 3세는 오히려 잘못 없는 “이단자”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운동을 일으킨다. 교황의 군대는 알비파가 있는 모든 지역에 들어가 대학살을 일으켰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체계적으로 이들을 계속 학살하면서 교황청의 지속적인 종교 재판관을 통해 - 이단자라 불리는 이들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이며

더 공격적인 고문과 살인운동 - 학살은 더욱 더 정도가 심해졌다.

교황청의 이러한 운동은 성공적이었다. 가톨릭 교회가 창단된지 100년 이내로 알비파를 모두 몰살했다. 가장 마지막 신도까지 알비파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 이단 교회들의 관습과 교황청의 거짓 교리에 완강히 반대 - 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왈텐스

서기 1170년 초기에 프랑스 리옹의 부유한 상인인 베드로 발테스는 리옹의 빈자 - 가톨릭 교회의 평신도로 그들의 재산을 나누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도로서의 빈곤함이라 믿음 - 로 알려진 성도들을 모았다.

1179년, 그들은 교황 알렉산델 3세가 그들을 축복했지만 동시에 현지 성직자로부터 허락 받지 않는 이상 절대 선교를 허락하지 않은 로마로 향했다. 그러나 왈텐스(혹은 불어로 알려진 보의 주민)는 로마를 따르지 않고 그들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진리를 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잣대를 성경이라 선언했다. 그들은 또한, 연옥, 교황청, 미사, 면죄부와 같은 가톨릭의 교리를 반대하는 선교를 했다.

1184년, 그들은 교황 루치오 3세로부터 형식상 이단자로 선포됐고 - 이는 1215년에 열린 제4차 라테라노공회의에서 공식화됐다. 그러나 1211년에 이미 80명 이상의 왈텐스인들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이단자로서 화형 됐고 이는 몇 세기 동안 진행될 박해의 시작이었다.

많은 왈텐스인들은 도피네와 피드먼트 산록지대 - 그리고 토리노 남서부의 알프스에 정착했다.

1487년, 교황 이노첸시오 8세는 왈텐스를 몰살시키기 위한 잔혹한 박해를 시작했다. 도피네의 왈텐스인들은 어쩔 줄 몰랐지만 피드먼트의 신자들은 자신을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교회와 프랑스 정부는 계속해서 왈텐스를 향한 박해를 지속했지만 많은 발도파는 이미 스위스의 알프스로 도망갔다. 드디어 1848년, 사보이 국왕 카를로 알베르도는 왈텐스에게 자유민권과 종교적 자유를 주었다. 얼마 후 왈텐스의 파견대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했다.

엘렌 화잇이 기록하길, “참된 교회가 로마교로부터 분리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성경상 안식일에 대한 로마교의 증오감 때문이었다. 예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법왕권은 진리를 땅에 내어 던졌다. 사람의 유전과 관습이 높임을 받는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은 짓밟힘을 당했다. . . . 암흑과 배교의 전기간을 통하여 로마교의 최상권을 부인하고 성상(聖像) 숭배를 우상 숭배로 보고 거부하고 참 안식일을 지킨 왈덴스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가장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였다.” - *각 시대의 대쟁투*, p. 65.

“침침이 싸인 산악들의 높은 성채들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박해를 받고 압박을 받는 사람들 왈덴스인들은 거기서 은신처를 얻었다. 이 곳에서 중세기의 암흑을 뚫고 진리의 햇불이 계속하여 타올랐다. 이 곳에서 천여 년 동안 진리의 증인들은 옛적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지켜왔다.” - *각 시대의 대쟁투*, p. 65, 66.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은 왈덴스인들의 전체적인 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 의하면 1540년도부터 1570년까지 대략 900,000여명이 처형당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그들에게 미친 여러 세기의 박해를 그들의 구원의 주를 영화롭게 한 인내와 성실로 견디었다. 그들은 토벌을 당하여 비인도적인 학살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전도자를 파견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잡혀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도리어 그들의 피는 이미 뿌린 씨에 물을 주게 되어 결실을 가져다 주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p. 78.

만약 왈덴스에 대한 더 자세한 역사를 알고 싶다면 *각 시대의 대쟁투* 4장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 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리를 위해 굳게 서는 투지/공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영감 가득한 근원이 될 수 있다.

여자는 어둠이 가득한 기나긴 1,260년동안 광야에 들어갔다 - 이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닥친 가장 끔찍한 박해가 몇 세기 동안 이어져나갔다.

친구여, 우리 중 몇 명이 박해와 고문 그리고 죽음마저 깰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있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세주에게 충성을 다 할 이들이 몇 명이나 될 까?

이 세상에서 - 지금 생애에 - 두 남녀는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그 어떤 일이 생겨도 만약 해야 한다면,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이를 위해 내려놓을 수도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매일 매일 사랑이 강한 예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나? 예수께서 망설이심 없이 우리를 위해 그의 삶을 바쳤듯이 우리도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시련을 견디다

우리는 지금 당장 대체적으로 순수 히 진리와 이의 저자 예수를 위해서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때가 올 것이다 - 그리고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빨리 올 것이다 -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그를 싫어하는 이들의 불합리한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그 날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 주를 향한 헌신을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가?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 어떠한 타협과 양보를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키우고 있나?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막상 그 선택 앞에 서기 전에 순교자의 은혜는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랑과 진념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수많은 알비파와 왈텐스인들이 경험한 희생을 우리로부터 원하신다면 그 때, 오로지 그 때에만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반쪽이 이 세상에 있다면 - 혹은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 만약 해야 된다면 그들을 위해 죽는 것은 특권이자 영광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우리의 창조주를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 - 성실하고 충성스런 선택 받은 자들 - 이 계셨고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은 오늘도 존재한다.

제 9 장

“내가 여기 있다”

지갑이나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가?

아마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해주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

아니면: “지갑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진 않았을 거야.”

혹은: “걱정하지마. 그냥 사라지진 않았을 거야.”

당장에는 이러한 조언들이 특별히 도움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사실이다. 역사상 그 어떠한 지갑도 갑자기 다리를 길러서 문 밖을 스스로 걸어가지 않았다. 단 한번도. 그리고 단 한번도 가방이 갑자기 공기 중으로 증발하지 않았다. 절대로.

따라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분명 어디엔가는 있다. 단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 되찾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리고 그 세가지는 최종적으로 발견됐다.

잠수사들은 침몰선 안에 같이 있는 수많은 금과 보석들을 찾곤 한다. 보물 탐험가들은 없어진 금광 - 혹은 지도상 “x”로 표시되어 충격적으로 많은 재물이 묻어있는 곳을 찾는다. 경찰은 미아를 찾는다. 복원 전문가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걸작을 발견하기 위해 그 위에 덧칠 된 페인트를 벗겨낸다. 모험가들은 없어진 성곽 - 성경의 성곽이든 노아의 방주를 찾는다.

물건이 없어졌다 해도 분명 어디엔가는 있다. 단지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성배나 솔로몬 왕의 금광 혹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야구공만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가장 귀한 보물은 이 지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른 이들과

나누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선물을 주고 가셨다: 그의 진리.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이 진리의 선물은 오류들도 점점 가려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 이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적의 의도적인 행위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침투해 타협과 위조의 길로 이끌어 그들에게 주어진 진리를 짓밟도록 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진리는 오류들로 - 허위와 거짓으로 덮였다.

- ▶ 모두에게 그냥 주어진 구원의 선물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가르침으로 대체됐다.
- ▶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인 예수께서 사제/성직자로 대체됐다.
- ▶ 성경의 권위는 교황의 권위와 인간적인 관습으로 대체됐다.
- ▶ 용서는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값 없는 선물이 아닌 얻어야만 하는 상품이 돼버렸다.
- ▶ 쉼의 날인 안식일은 일요일로 대체됐다 - 인간이 고른 날이다.
- ▶ 하나님께만 드리는 고백은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 ▶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선물인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 외 모두에게 읽히거나 소유되는 것이 금지됐다.
- ▶ 심지어 길 잃은 교회에게 알맞게 하나님의 십계명 조차 변경되었다.

더 나아가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관습은 “진리”로 가르쳐졌다 - 이 중 몇 개는 미사, 화체설 (성찬 시 떡과 포도즙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교리), 죽은 이들을 대신하는 기도, 마리아와 여러 “성인(聖人)”에 대한 숭배, 그리고 우상과 그림들의 신성불가침이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진리에 대한 신실한 제자들이 *언제나* 있었다는 것이다. 에덴 동산부터 사단은 진리를 위조하고 은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리를 믿고 살고 나누기를 단호하게 결심한

이들이 언제나 계셨다.

아담 이후의 부조들이나, 이스라엘의 신실한 이들, 초기 교회 성도들, 혹은 - 그들의 목숨을 받쳐서라도 진리를 지켜낸 우리가 이전 장에 언급한 알비파와 왈덴스인들이든 -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끊임없는 신실한 이들을 갖고 계셨다.

암흑시대의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진리를 다시 세상에 알리기 위해 단호히 결심한 용감한 충신들을 찾으셨다.

학교 게시판 글

한 독일의 대학교 학교 게시판에 붙여진 글로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는 대학교 교회의 문은 캠퍼스의 중앙/중심 안내판으로 사용됐다 - 그리고 1518년 9월 31일 이 안내판을 본 이들은 가톨릭 신부이자 대학교의 교수가 쓴 글을 읽었다. 이 글은 -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 로서 빈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 못박혀있었고 - 이는 성경의 진리에 대한 오류를 직면했으며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어 버리면서 역사를 바꿀 것이었다.

역사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시초라고 기록되었으나 개혁이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은 1세기 전 혹은 조금 더 전으로 존 위클리프로부터 시작했다. 비록 그는 마틴 루터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후에 그는 그의 성경 진리에 대한 대담한 가르침과 설교들로 인해 “종교개혁의 섯별”로 알려질 것이었다. 루터와 같은 미래의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위클리프의 영향은 엄청났고 그는 나중에 최초로 성경을 일반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출판하는 사람으로 알려질 것이었다.

미래에 나타날 종교개혁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이가 또 있었는데 그는 위클리프의 학생이자 제자인 존 후스였다. 그는 루터와 다른 이들이 오랫동안 오류로 묻혀진 진리를 밝히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필요한 초석을 대부분 가르쳤다.

후스는 교회의 수많은 오류들을 강력히 반대했고 그 중 하나는 sale of indulgence - 죄의 용서를 확보하기 위해 기부를 하거나 비용을 지불 하는 것이다. 교회는 후스를 이단자로 선포했고 1411년, 후스는 교회에서 파문 당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도 교회의 오류를 반대하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 알리는 것을

계속했다. 그리고 1415년에 교회는 후스를 화형 시켰다. 존 후스의 친구이자 추종자 프라하의 예로니모는 그 다음 해에 후스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된다.

개혁이 시작되다

개혁 전 지도자들은 후에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반을 구축했다. 루터가 1517년에 진실과 오류를 깔끔하게 지적했을 때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곧 루터는 교회에서 추방됐다. 그리고 새로 발명된 인쇄기로 인해 종교개혁 운동은 빨리 퍼져나갔다. 스위스에서는 루터의 노력이 메아리 쳤고 울리히 츠빙글리가 그와 손잡았다. 프랑스 신학자 존 칼뱅은 스위스, 스코틀랜드, 헝가리, 독일 그리고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운동을 시작했다. 루터는 네덜란드 신학자 에라스무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고 에라스무스는 평생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었지만 가톨릭 교회의 오류에 대한 반대문을 아주 정교하게 기록했다.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순간은 1521년 4월 16일, 교황과 연맹을 맺은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루터를 독일의 보름스 도시에 있는 디에트(의회)로 불렀을 때다.

지역 대주교의 조수, 요한 에크는 루터의 글들로 가득히 쌓여있는 책상을 루터에게 보여줬다. 에크는 이 책들이 루터의 것이 맞고 그가 쓴 내용에 대해 아직도 동의하는지에 대해 물어봤다.

루터는 대답을 하기 전에 시간을 구했고 그들은 그의 부탁을 허락했다. 루터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동료들과 상의했다. 다음날 그는 다시 디에트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에크는 “이 책들과 그 내용들이 오류임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다.

루터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에 대해 굳게 서길 위한 포부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존심과 도전의 문제여야 한다:

“내가 성서와 솔직한 근거로 확신을 받지 않는 이상” 루터는 대답했다, “나는 성서와 반대되는 교황과 의회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혔다. 나는 내 양심이 허락할 수 없는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에 내가 쓴 증언을 취소할 수 없고 안 할 것이다. 내 의지는

굳건하며 더 이상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지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며칠 후 디에트는 루터를 무법자이고 이단자임을 알리는 칙령을 내렸다. 그러나 벌써 이 때쯤 루터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바르트부르크성으로 안전하게 피신했다. 루터는 거기서 그의 친구이자 동료인 필리프 멜란히톤에게 조언해주고 서신을 할 기회가 있었다. 멜란히톤은 나중에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루터에게 도움을 주는 몇 명중 하나가 될 것이었다.

1534년에 번역된 이 성경책은 차후에 영어로 번역된 신약을 편찬할 윌리엄 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가져다 주게 된다. 그리고 틴들의 편집본은 몇 십 년 후에 나타날 킹제임스 성경의 발전에 토대가 된다.

분명히 몇 세기 동안 교회가 일반인들에게는 숨겨왔던 성경책이 또 다시 세상에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 사람들이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과 진리를 직접 대조할 수 있게 되면서 - 종교개혁은 앞으로 빨리 전진하고 있었다.

종교개혁의 거인 루터는 그가 사망한 1546년까지 잊혀진 진리를 되여 갖고 회복하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었다.

루터, 칼뱅, 그리고 개혁의 여러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원래 초기 교회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탁하신 순수한 진리에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 몇 세기에 걸친 거짓말과 위조된 가르침을 없애셨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초기열정과 탄력을 서서히 잃을 것이었다. 성경의 모든 진리가 밝혀지고 회복되기 전에 개혁된 교회들은 대부분 그들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대신 구조적 문제와 서로간의 차이점을 다투는데 시간을 썼다.

안식일과 예수의 재림, 우리의 중재자로서 그리스도의 역할과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질/본성과 같은 잊혀진 진리에 대해 찾는 것은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될 것이었다.

사데

사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 중 하나로서 종교개혁 당시 교회들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살펴보자: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 요한계시록 3장 15절.

또 다시 말하지만, 사데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번 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범위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교회는 살이 있는 것 처럼 보였다: 지속적인 예배, 종교적과 정치적 세계의 지배, 대규모의 사제직, 부유함과 화려한 건물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들은 이미 옛날에 죽었다.

그런데 다음 부분에서: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극소수. 순결한 자들. 자격을 갖춘 자들. 맞다. 이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따르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다. 그 어떠한 일이 닥쳐도 예수와 그의 진리에게 충성한 몇몇의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물론 얀 후스, 프라하의 예로니모, 루터, 그리고 이외 몇몇은 그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잘못된 진리에 대해

대담히 저항했고 진리를 알렸다. 그러나 이들만큼 용감하나 언급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 중 프랑스와 스위스의 위그노가 루터와 칼뱅의 개혁의 부름에 열정으로 반응했다. 이들은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온 마음을 다해 믿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성경의 권위, 사람인 신부들이 아닌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직접적 연결.

가톨릭 교회와 그들의 가르침을 아주 강력히 반대하자 위그노 교도들은 분노의 박해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향한 위그노 전쟁은 1562년 3월에 일어난 대학살로 시작됐고 이때 죽은 위그노들의 숫자는 알 수 없다.

1572년 8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 파리에서 시작해 주변 도시들까지 퍼져나간 성 바르톨로뮤제의 학살에서 대략 70,000명의 위그노인들이 학살됐다. 그들을 향한 박해는 프랑스의 새로운 왕 앙리 4세가 그들의 구역에 한한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허락한 1598년까지 이어졌다.

1600년대에 많은 위그노인들은 남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의 13식민지로 이주했다. 이주민들 중 은세공인 아폴로스 리보이레가 있었는데 그는 그의 영어화된 이름과 직분을 그의 아들 폴 리비에에게 물려줬다 - 그는 유명한 미국 독립 혁명가다 된다.

오늘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실상 거의 완벽한 자유를 갖고 우리의 신앙을 갖고 가르친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는 우리 눈 앞에서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국가적 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서서히 없어지는 세상이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가 평생 알고 당연하단 듯이 갖고 있는 이 자유를 잃을 것이다. 그리고 박해와 반대가 일어날 시대가 또 올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신실한 무리들에 속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알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현재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원칙과 헌신에 뿌리박았나 - 아니면 내 편의를 위한 신앙일 뿐인가? 우리의 충성심은 몇몇의 진리에만 의한 건가 - 아니면 모든 진리에 대해 충성을 다할 것인가?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셨다. -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진리를 사랑한다면 진실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진리에 충성을 다한다면 진실에 충성할 것이다.

이 장을 마무리할 질문을 물어보겠다: 박해의 가능성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나? 아니면 만약 때가 된다면 - 분명히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 우리는 예수께 충성을 한다는 가장 높은 영광과 특권임을 알고 충성을 다하기 위한 기회를 환영할 것인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 - 성실하고
충성스런 선택 받은 자들 - 이 계셨고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은 오늘도 존재한다.

제 10 장

젯더미에서 승리로

릴레이 경기가 아무리 길어도 - 주자가 몇 명이 되더라도 -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항상 유지되는 것이 하나 있다: 배턴이다.

첫 주자부터 마지막 주자까지, 배턴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넘겨진다.

아담으로부터 처음 전달되어 흥성스런 이들로부터 몇 세기 동안 전달되어왔다 -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 날까지 안전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전달 될 것이다.

배턴이란?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 그리고 그의 진리: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나눈 것들과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한 세기에서 다음 세기까지 배턴은 전달되었다:

- ▶ 아담으로부터 구약의 부조들...그리고 이스라엘과 그의 선지자들에게.
- ▶ 이스라엘에서...초대 그리스도 교회에게.
- ▶ 초대교회에서...기나 긴 암흑시대의 교회에게.
- ▶ 광야의 그 교회에서...종교 개혁의 용감한 지도자들.
- ▶ 그리고 개혁인들에서...위대한 재림운동 지도자들에게.

종교개혁은 오랫동안 방치되고 의도적으로 숨겨진 진리가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진리를 오류와 거짓으로 바꾸고 -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충심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을 박해하는, 하나님의 적에게 교회를 팔아 넘긴 교회를 노출시켰다.

종교개혁 당시 헌신적인 이들은 진리의 배턴을 잡고 개혁을 발전시켜나갔다: 루터와 츠빙글리, 칼뱅 그리고 메란히톤과 같은 사람들이 말이다. 그러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도 개혁을 도왔다.

영똥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주제를 터널로 바꿀 것이며 그 이유는 곧 알게 될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은 혼슈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일본의 세이칸 터널이며 - 철도 터널 - 길이는 54km이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이 2012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길이는 57km이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서 시작되는 터널을 들어가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 대략 1908km의 거리 - 까지 단 한번도 터널을 나오지 못하고 도착하는 상상을 해보자. 어둡고 짙은 봉괴와 깡패들이 약탈하는 등 짙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 위험한 터널을 말이다.

서기 528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은 킬로미터로 셀 수 있는 터널이 아닌 연도로 재어진 터널에 들어갔다 - 1,260년으로 계산되는 터널을 말이다. 지배적이며 배교하는 로마교회의 탄압과 박해로 가득한 터널. 암흑시대로 알려진 이 터널 속에 그들이 가진 것이라곤 갈 길에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

그러나 서기 1798년에 프랑스 장군 베르티에가 로마의 교황을 포로로 잡음으로서 교황청의 권위는 무너졌다 -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는 이 사건을 “상하여 죽게 된 것”으로 표현한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빈텐베르크 대학 성당에 붙인 1517년부터 1798년까지 개혁은 앞으로 나아갔다 - 오랫동안 잃어버려지고 진압된 진리를 회복하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개혁이 제도존중주의와 분파주의로 인해 대부분의 가속도를 잃었지만 더욱 많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에 있던 겸손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연구했다.

그리고 이 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대단한 진리는 가장 알맞은 때에 나타났다. 왜냐하면 단지 40년만에 종교적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열광적인 소식을 알게 됐고 이를 중심으로 거대한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대서양에서부터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있던 수많은 예언적 학자들이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고 위대한 재림운동이 교회들 사이에서 일어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어난 이 운동의 핵심인물은 신학대학을 나온 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영향적인 도시교회의 유명한 목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둡하고 제한돼 있었다.

젊은 이신론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윌리엄 밀러는 젊을 때 모태신앙을 버리고 이신론 - 하나님께서는 부재지주로서 이 세상을 마치 시계처럼 태엽을 감은 뒤 지구가 스스로 제 일을 하도록 떠나버린 신이라는 종교적 철학 - 을 종교로 선택했다. 이신론은 이러한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특히 기적을 절대 행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침례교 목사였던 그의 삼촌과 할아버지는 윌리엄이 그의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그를 자주 방문하면서 노력하였으니 그는 방문이 끝나면 그의 삼촌과 할아버지를 비웃으며 그의 친구들을 웃게 했다.

그러나 1812년의 전쟁에서 목숨을 가까스로 보존하고 나서 그는 그의 이신론적 신앙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뉴욕 북부의 햄턴으로 돌아가 당시 미국인 10명중 9명이 선택했던 직업인 농업을 시작했다. 이신론에 대한 의문은 깊어져만 갔고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갈급함은 커져만 갔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가 그토록 찾던 구세주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삼촌과 할아버지를 조롱했듯이 그의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모순으로 가득하다며 도로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자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에게 시간을 주면 분명해 보이는 모순을 해결하고 만약에 실패한다면 다시 이신론자가 되겠다.” 고 하였다.

성경과 성구 사전(聖句辭典)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림교인으로서 잘 알 것이다. 밀러는 그가 소유했던 모든 책을 치우고 성경과 쿠르턴즈의 용어 해설집만 남겨두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 의미가 분명히 이해되고 모든 모순이 해결되기 전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의 연구 방식은 성경이 스스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분명해 보였던 모순 하나 하나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밀러는 예수와의 우정이 점점 강하고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구절마다 그는 단조롭게 앞으로 진전했고 어느 날 그는 그의 일생의 관심을 사로잡을 구절에 도착했다 - 그리고 아직 1700만명밖에 안된 아직 젊은 미국인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운동을 시작했다.

다니엘서 8장 14절: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밀러의 연구는 전력소모를 요구했으며 밤 새도록 연구를 하곤 했다. 성경을 성경과 대조한 바 때에 관한 예언에서는 성경상 하루가 일년임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2,300일은 2,300년이었다. 다니엘서, 특히 8장과 9장을 연구한 결과 2,300년의 기간은 기원전 467년에 시작되었고 그의 계산에 의하면 대략 25년 후인 1843년에 그 기간이 끝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재림하실 거라는 의미로 밀러는 결론을 내렸다. 밀러는 마음 속 깊이 “가서 세상에 알려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5년동안 밀러는 이 내적 음성을 회피하고 그의 발견에 대한 연구를 더 했다 - 그가 내린 결론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이렇게 5년동안의 연구가 그의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했을 때쯤 그에게는 새로운 제지가 일어났다: 연설의 두려움이었다. 밀러는 설교를 통해 그의 발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무서워 또 8년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음성을 무시했다. 그러나 그 음성은 더욱 더 커져만 갔다.

그래서 어느 토요일 아침 밀러는 이 부담을 완벽히 없애기 위해

하나님과 협상을 했다. “주여” 그가 말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누군가가 제 연구에 대한 설교를 부탁한다면 하겠습니까.”

안도하는 마음으로 밀러는 의자에 편하게 앉았다. 그 어느 누구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50살 농부에게 재림에 대한 설교를 부탁할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틀렸다. 누군가 그 부탁을 할 예정이었다.

그가 기도를 마치고 30분 내로 누군가 그의 문을 두드려 밀러를 놀라게 했다.

“윌리엄 삼촌,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문 앞에 어떤 작은 소년이 서있었다.

“내 조카 알빙!” 밀러가 큰 소리로 말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침 일찍 26km나 집에서 떨어진 이곳에 왔니?”

“윌리엄 삼촌, 제가 아침도 못 먹고 이렇게 일찍 온 이유가 바로 드레스덴에 있는 우리 침례교 목사님께서 내일 설교를 못하시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삼촌에게 무언가 부탁하려고 저를 보내셨어요. 삼촌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경에 대해 공부하고 있던 것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부탁 드리러 왔어요. 오실 거죠?”

단풍나무 숲에서 겨루다

밀러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고 알빙은 그 자리에 당황한 눈빛으로 서있었다. 그리고 밀러는 재빨리 근처에 있는 단풍나무숲으로 향했다. 거기서 마치 구약에서 야곱이 천사와 겨뤘듯이 밀러 또한 하나님과 한 시간 동안 힘들게 싸웠다.

윌리엄 밀러는 하나님과 나눈 약속을 한 것에 대해 몹시 화가 났고 동시에 겁에 질렸다. 그는 하나님께 제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라며 애원했다. 그러나 결국 눈물과 고뇌 끝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 그리고 그의 결심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기쁨에 사로잡힌 밀러는 이제 위아래로 뛰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를 문 앞에서 바라보던 그의 딸 루시 앤은 재빨리 집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어머니 - 빨리 오세요.”

곧 밀러와 알빙은 드레스덴으로 향했다. 거기에 있던 교인들은 너무 감명받아 한 주 동안 매 밤마다 설교를 해 달라고 밀러를 설득했다.

시작부터 그의 설교를 드레스덴에서 들은 후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천천히 물 밀려오듯 거의 모든 교단에서 급하게 그를 초대했다.

밀러가 어디서든 설교를 하면 부흥회로 이어졌다. 예수의 재림이 매우 가깝다는 그의 놀라운 소식에 마을 전체가 변했다. 8년동안 밀러는 작은 마을마다 가서 바쁘게 설교를 했다. 그리고 1839년도 가을에 뉴햄프셔의 엑서터에서 모임을 끝낸 후 그의 목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됐다.

34세에 죠수아 하임즈는 젊은 나이에 노래와 술, 그리고 전쟁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반대하기로 유명했다. 엑서터에서 예배가 끝난 후 하임즈는 자신을 소개한 후 보스톤의 살딘가에 위치한 하임즈의 예배당으로 설교자로 초대했다.

1839년 12월 8일에 밀러는 처음으로 미국의 대도시의 부흥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 하루에 두 번의 예배가 진행됐지만 매번 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했다.

어느 날 밤 하임즈는 밀러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 정말 믿습니까?” 라며 질문했다.

“하임즈 형제여, 내가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믿는다.”

“그렇다면 세상에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당신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밀러는 그가 초대받은 모든 작은 마을과 소도시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하임즈는 경악했다.

모든 소도시와 마을?

도시는? 볼티모어와 뉴욕,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1700만명의 시민들에게는?

“당신이 주장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몇 년이면 재림하실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빨리 사람들을 깨우고 준비하도록 천둥같이 큰 소리로 알리는데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라며 하임즈는 말했다.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불타는 비전을 가진 하임즈는 조력자이며 계획자 그리고 조직자가 되었다. 그는 밀러가 미국의 대도시에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집회를 줄줄이 계획했고 곧 밀러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다.

하임즈는 그의 교단인 크리스찬 커넥션의 목사들이 밀러가 그들의 교회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 이 교회들 중 밀러의 설교는 로버트 하먼 가정에 전해졌고 - 이 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창시자이자 그들의 어린 딸 엘렌에게 재림의 희망을 심어주게 되었다.

이 운동은 삼시간에 퍼져나갔다. 언제나 열정이 넘쳐난 하임즈는 밀러의 설교와 동반할 출판 ministry 를 시작했다. 다른 목회자들 또한 그들의 힘을 보태기 위해 운동에 참여했다. 감리교인이었던 조시아 리치는 밀러의 강의를 200장 책으로 출판했다. 리치는 또한 보스턴 집회목사인 찰스 피치를 설득해 도움을 요청했다. 리치와 또 다른 유명한 감리교인 아폴로스 헤일은 밀러의 설교의 가장 핵심인 예언적 연대표인 “1843 연대표”를 발달했다.

그러나 “밀러의 운동”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극한 되지 않았다. 대재림운동은 북아메리카의 교회들 사이에 스나미처럼 퍼져나갔다. 몇 천 개의 전도회와 집회가 진행됐다.

밀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대략 1843년”에 일어날 것이라고만 말할 뿐 정확한 재림의 날짜를 말하는 데에 오랫동안 피했다. 그러나 같은 해 1월에 그는 추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 유대인 달력을 계산에 추가시켜 - 예수께서 1943년 3월 21일에서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계산을 했다.

이 기간이 끝나고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자 첫 대실망이 일어났다. 그러나 1844년 후반 - 뉴햄셔의 엑서터에서 진행된 8월 전도회에서 밀러라이트 목회자 스노우(S. S. Snow)가 나눈 그의 발견으로 인해 이 운동은 새로운 방향을 잡게 되었다. 그가 다니엘의 2,300년에 대한 예언을 연구한 결과, 유대인 달력으로

7번째 달의 10번째 날, 즉 1844년 10월 22일 - 두 달 후에 - 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놀라운 소식은 모든 사람들을 급속히 열광하게 만들었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에 알려려 떠났다: “보라 신랑이로다!” 곧 밀러와 하임즈 그리고 운동의 다른 지도자들은 스노우의 계산이 완벽히 맞는다며 의견을 모았다.

1844년 10월 22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님께서 재림하시길 기다렸다. 그러나 하루가 다 지나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 왔고 두 번째 대실망이 또다시 찾아왔다.

10월 24일 리치는 밀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오늘 이곳은 흐리고 어두운 날이다 - 양은 흩어졌고 - 주님께서는 아직 안 돌아오셨다.”

여파

대실망 이후 몇몇의 신도들은 모든 희망을 잃고 대재림운동이나 그들의 신앙, 혹은 둘 다 버렸다. 어떤 이들은 10월 22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른 이들은 예수께서 10월 22일에 재림하셨으나 그의 재림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재림이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아직도 깊고 긴 슬픔에 빠졌다. 그리고 몇몇은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무엇인가를 놓쳤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와 연구를 계속했다.

모든 재림교인들이 알 듯, 이 후반 그룹에서 진심 어린 성경 연구 학생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분명 1844년 10월 22일에 무엇인가 일어났고 - 예수의 재림이 아닌 하늘의 성소인 지성소에 처음으로 들어가셔서 그의 마지막 중보를 행하시기 위해 들어가셨다고 믿었다.

하이람 에드슨, 크로지어, 그리고 한은 정결케 될 성소가 지구가 아닌 하늘의 성소임을 깨달았다.

곧 다른 사람들도 이들의 연구에 동참하고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었다. 이들 중: 젊은 그리스도인인 개혁회 목사 제임스 화잇; 하몬 가정의 어린 10대 소녀 엘렌 하몬, 이젠 제임스 화잇의 부인; 그리고 은퇴한 선장 요셉 베이츠가 있었다.

썩쓸한 실망으로부터 대재림운동을 그 원범위 이상으로 넓게 퍼트릴 새로운 운동이 시작될 것이었다. 환멸의 눈물로부터 예수의 재림은 정말 있을 것이며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급한 울부짖음을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임명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확신이 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 중 종교개혁부터 대재림운동까지 이어지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 “형제간의 사랑”이 있는 교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 다른 교회들의 혼란한 바벨론에서부터 불러 나와 -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교회가 나타날 것이니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신 강한 경고와 비판을 할 것이었고 이 내용은 다음 장에 언급할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의 끊어지지 않은 족보? 분명 당연히 대재림운동이 있었던 시대에는 밀러와 하임즈, 그리고 피치와 같은 리더들 - 그리고 나중에 에드선과 화이트 그리고 베이츠도 포함된다.

그리고 물론 이 족보에는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신실한 이들도 - 진리에 충성을 다하고 -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께 -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신했다.

정말 기나긴 경주였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돼 배턴은 계속 전달되어 내려왔다. 재림운동을 통해 배턴은 이제 당신과 내 손 안에 쥐어졌다.

우리는 이제 이 경주의 끝자락에 있다. 내 친구여, 배턴은 이제 당신의 손에 있다 - 그러니 꼭 잡고 있어라. 이 배턴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왔다. 이 배턴에는 아담과 노아,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 -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요한 - 왈텐스인들과 알비파와 위그노인 - 루터와 칼뱅, 츠빙글리 그리고 위클리프 - 밀러와 하임즈, 에드선과 화이트의 지문이 묻여있다.

당신의 손에 있는 이 배턴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 - 성실하고 충성스런 선택 받은 자들 - 이 계셨고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은 오늘도 존재한다.

제 11 장

진리의 챔피언

큰 도시 속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나?

가장 이상적으로 당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마법처럼 공중으로 떠 올라 당신의 위치를 알기 위해 하늘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방향을 다시 잡기 위해 공중분양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자동차에 비교적 최신 GPS (위성항법시스템)가 달려있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호주 - 또는 GPS가 가능한 다른 나라들에서 살고 있다면 문제없다. GPS만 갖고 있으면 이미 위성 네트워크가 이미 우주에 구축되었기 때문에 - 대략 20,000km위에서 - 위성들끼리 “삼각망”이 구축되고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위성들이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공중으로 날아 올라갈 필요가 없다.

자동차에 설치된 GPS를 통해 우리는 화면을 통해 우리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든 가고 싶은 곳까지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다. 또한 “길치”인 이들을 위해서는 GPS는 축복이다.

가끔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도 길을 “잃을” 수 있다. 어떤 주제를 향해 왼쪽으로 가다가 또 다른 주제를 쫓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여러 문단들과 장 사이로 몇 킬로미터 가다가 어느새 여기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독서의 방향을 잃는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잠시 멈추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잡아보자. 우리가 어디서 시작을 했고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어디로 향할 것인지 다시 복습해보자.

우리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 -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런 제자들에게 대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미션이 주어졌다 - 진리의 챔피언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 진리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돼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주신 모든 진리와 - 예수께서 이 지상에서 살고 계시는 동안 가르쳐주시고 직접 모본이 되어 보여주신 진리이다. 그러나 이

모든 진리 중 가장 중요한 진리는 -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진리이다.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 -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고 불가능을 요구하시고 비판주의이며 복수심에 불타있고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해서든 뺏으려고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복을 앗아가려고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적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죽음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적은 자신이 이 세상을 다스릴 힘이 주어진다면 모든 존재들이 궁극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을 내리시길 간절히 바라고 계시며 죄를 짓는 이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신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따라서 만약 해일이나 사이클론, 지진이 일어나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다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분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고 계신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은 한 단계 더 앞서나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파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의 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토록 만들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의 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도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분이실까?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 혹은 강력한 심판과 멸망을 갖고 오시는 분일까?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드셨을까 - 그리고 그들의 그의 법률을 지키지 못할 때 죽음을 선고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당근으로 사용해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상으로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를 때는 채찍을 사용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나를 사랑하라 - 안 그러면?”일까?

위조자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인류를 향해 나는 모든 진리에 그의 적은 위조품을 만들어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치명적이라고 말씀하셨다. 죄에서 멀리하라 - 죄는 너를 죽게 할 것이다. 사단은 아니라 한다. “넌 절대로 죽지 *않아!*”. 아니, 네가 “죽은” 다음에도 너의 영혼은 살아가. 넌 아직도 살고 있어 - 다만 다른 세계에서

살 뿐이야.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단은 아니라 하신다. 일요일 - 매주의 첫째 날이야.

성경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이들이 직접 볼 것이라고 기록한다. 사단은 아니라 하신다. 예수께서는 비밀리에, 휴거로 오실 것이며 몇 명만 그를 볼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거짓은 계속 된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반항이 너무나도 완벽해 사단은 더 이상 진실을 구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사단은 거짓말만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진실에 대해 사단은 거짓을 만들고 이 땅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거짓들이 가장 널리 알려진 가르침이 되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들에 대한 거짓을 꾸미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 사단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적의 거짓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갖고 계셨다 -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며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도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류에게 알려주신 진실을 지지한 이끈 충성스런 자들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인류에게 주신 진리 또한 보호했다 - 자신을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고 부르는 그분 말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 하셨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 그의 아버지에 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

- ▶ 아담과 부조들은 진실을 지켜냈다 - 진리 또한 지켜냈다.
- ▶ 이스라엘과 그의 선지자들과 왕들은 진실을 지켜냈다 - 진리 또한 지켜냈다.
- ▶ 초기 교회들은 진실을 보호했다 - 진리 또한 보호했다.

- ▶ 핍박과 타협에 포위되었을 때 사도들 이후에 나타난 초기 시대의 믿는 자들은 진실을 보호했다 - 진리 또한 보호했다.
- ▶ 개혁자들은 배교 교회와 싸우며 진실을 지켜냈다 - 진리 또한 지켜냈다.
- ▶ 유럽과 미국에 있던 개혁 후 성경공부 학생들은 예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며 진실을 보호했다 - 진리 또한 보호했다.

이후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자 아주 큰 실망에 빠졌다. 그러나 이 큰 상처에서는 재림교인 사학자 L.E. 후름이 표현하길 “운명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었다 - 마지막이자 최종적인 하나님의 충성스런 남은 자들이 지켜낼 진실 - 그리고 진리일 것이었다.

끊어지지 않은 족보

우리가 다시 “길을 찾기 위해” 이 장에서 잠시 쉬었는데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이 순간까지 끊어지지 않은 충성스럽고 신실한 이들이 에덴에서부터 꾸준히 세기마다 이어져 나갔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의 임무가 단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임무란, 하나님의 진실을 나누고 지키는 것이다 - 하나님의 적이 야만적으로 그리고 추잡스럽게 위조한 바로 그 진리 말이다. 그리고 더 열렬하게 진리 - 우리의 주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 를 나누고 보호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오랫동안 억눌러지고 오랫동안 잊혀진 많은 진실을 회복했다. 또한 몇 세기 동안 이어진 오류와 거짓 그리고 위조품을 드러냈다. 종교개혁이 세상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주장 - 인간의 관습이 아니며 -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서 받는 구원 - 사람의 노력과 실적/공로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채 끝나기 전에 그 탄력을 잃었다. 아직 회복되어야 할 필수적인 진실들이 남아있었다. 성경의 예언들에

대한 착오가 초기에는 있었으나 대재림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재발견했고 진실은 지켜졌다.

이번 장 초기에 언급한 릴레이 선수들처럼, 배턴은 이제 가장 마지막 주자에게 전달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역사 말기에 펼 가장 마지막 주자인 남은 무리들을 그의 진실 - 그리고 진리 - 를 지켜내기 위해 부르실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길 예정이시었다.

맞다. 하나님의 마지막 충성된 자들 - 마지막에 남은 무리들 - 은 잃어버려지고 소외된 진리들을 다시 찾을 것이었다: 안식일,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역할,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질,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중대함.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남은 무리에게 세상에 알려진 메시지 중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줄 것이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이다.

요한계시록 14장 6-12절에 기록된 이 세 기별은 지구의 역사가 끝나기 전, 아직 살아있는 몇 억 명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 - 그리고 그의 마지막 경고이다. 마치 노아가 당시에 살던 이들에게 호소를 하고 경고를 했듯이, 침례 요한이 예수의 초림에 대하여 알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서기 2000년,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에 경고하고 호소를 할 임무와 특권을 가질 사람들을 갖고 계신다.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의 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하자면:

1. 영원한 복음은 심판의 때로 인해 더욱 더 긴급히 알려져야 할 복음이 되었다.
2. 혼란스러운 바벨론과 위조된 종교들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
3. 거짓 종교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적의 “짐승”의 “상징”을 받는데 너무 위험하다.

맞다, 여기에는 긴급한 메시지들이 있다. 맞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은 반드시 진실을 오류와 위조와 대조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자. 그 다른 어떤 것도 중요치 않다. 이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
예수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 - 은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무리들의 일차과제이다.

엘렌 화잇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선봉이 되어야 한다.” - *복음교역자*, p. 156.

그렇다면 1844년의 대실망에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로 인하여 회복되고 재발견되고 재생(再生)된 교리들과
진실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8 옆에서 진실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꼭 그렇지 않은 않는다. 모든 진실의 근원은 무엇인가? 누가
이들을 가르쳤는가?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가장 큰 실수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첫 번째 실수는 주변을 바라보며 다른 교회들이 예수와
구원에만 집중하고 이러한 진실들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특별한 교리들에
대한 진실들만 알리는데 집중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 실수는 이 진실들이 마치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듯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 어떠한 진실은 -
그 어떠한 교리들은 - 진리와 연결해서 보지 않는 이상, 옳지도
이해가 될 수가 없다. 모든 교리와 진실은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끝난다. 안식일은 예수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서만 중요하다 -
예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성전은 단순히
상징과 예배가 아닌 예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또렷이 알려주는 삽화이다.

혼란에 빠진 몇몇의 종교들은 최소한 예수에 대해 가르치고
설교한다. 그러나 이들은 “값싼 은혜”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혹은 몇몇은 이미 구원을 받을 예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못 받는다는 가르침과 흔적을 너무 쉽게도 남긴다.

하나님께서서는 인류에게 구원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균형 잡히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마지막 남은 무리들에게 주셨다.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교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 또한

보여주셨다 - 어떻게 이 모든 진실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셨다.

남은 무리들

재림교인으로서 - 최근에 침례를 받았든 혹은 어릴 때부터였든 - “남은 무리들”에 대하여 자주 들어봤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교회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마케팅 슬로건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신실한 마지막 제자들을 가리키시는 표현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살펴보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예언에 의하면 용, 즉 사단은 “여자” -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 그의 교회- 를 향해 분노했고 그녀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하여 갔다. 남은 자손: 남아있는 사람들. 마지막 부분이다.

그리고 예언은 이 남은 자손들을 두 가지 상징으로 구별할 수 있다: 1)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2)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의만 하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 후롬 박사에 의하면 “운명의 운동”은 - 하나님의 유일한 진정한 자녀들의 전용 주거지이다 -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만 구원이 확실해진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의 일원으로서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자손”들 - 그의 충성스런 사람들 - 은 아직 재림교회의 일원이 아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p. 390.

그렇다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아니라라는 뜻인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 모두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 안에 있지는 않다. 사실 이 몇몇의 남은 자손들은 이미 수명을 다했거나 - 수명을 다하기 전까지도 - 남은 교회의 일원이 공식적으로 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남은 교회로 들어오라”고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남은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단체 - 하나님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조직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원으로서의 혜택으로 구원을 주기 위하여 남은 자손들을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교회를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한 자손들이 함께 모여 어떻게 힘을 모아 하나님의 진실들 - 그리고 진리이신 그 분 - 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셨다.

당신은 풀어질 수 없을 듯할 만큼 형클어진 줄이나 끈 혹은 정원용 호스를 풀어본 경험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형클어진 줄을 풀 수 있을까? 줄의 끝부분을 찾아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어떠한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거나 심지어 논쟁까지 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 기준에 대해 토론하고 신학을 트집잡고, *교회요람*을 어떻게 적용할 지 논쟁을 하고 교리들을 분석한다.

어떤 문제가 계속 꼬일 때 반사적으로 “끝부분”을 찾기 위해 다시 되돌아가기만 한다면 수많은 시간을 아끼고 -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에는 - 모든 교리들, 교회의 모든 기준, 교회의 모든 행동 - 은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끝난다. 우리가 그분에서 시작하기만 한다면 - 그리고 그분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 형클어진 줄은 풀릴 것이다. 서로와 조화를 이루고 - 사소한 것들을 크게 다룰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주 긴급하고 필수적인 임무가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면에게 알리고 높임 받으셔야 할 구세주가 계시다. 오류들에 대하여 경고를 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당신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인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다. 당신은 선택 받고 부름을 받았다. 바로 당신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나 긴 신실한 제자들의 족보의 한 명이 되기 위하여
당신을 초대하셨다. 당신이 경주의 마지막 부분을 달리기 위해
당신에게 배턴을 들고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진실 -
그리고 진리 -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학교에 출석해라. 일하러 가라. 해야 할 일들을
하야라. 자녀들을 키워라. 당신이 현재 “속해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늘
준비되어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라.
아직 혼란스럽고 길을 찾고 있는 길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흐를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위하여 만드신 “신성한 임무”들을 믿어라. 나누기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의 “운명의 운동”의 마지막 부분이 되기
위하여 당신을 얼마나 명예롭게 만드셨는지 - 당신이 얼마나 특권
있는자인지 - 상상해보아라.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 대하여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최대한 빨리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 - 성실하고
충성스런 선택 받은 자들 - 이 계셨고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은
오늘도 존재한다.

제 12 장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셨다.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나?”

- ▶ 지팡이다. 단순한 나무 지팡이. 그러나 모세는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 ▶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손을 통해 트럼펫과 횃불, 그리고 질동어로 기드온과 그의 무리들이 미드온 사람들을 패산 시켰다.
- ▶ 빵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가 예수의 손을 통해 5000명을 먹였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고 겸손하고, 미약한 이들을 자주 사용하신다.

1844년의 대실망으로부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가 탄생하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십대 소녀를 택하셨다.

1827년 태생 - 엘렌 하몬 - 은 하나님으로부터 17세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로 가는 여정을 비전을 통해 보았다. 이 비전은 그녀가 평생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받을 2,000여개의 비전 중 가장 첫 번째 비전이였다. 엘렌은 1846년에 예수의 재림이 임박 하다는 그녀의 신념을 함께 나눈 젊은 목회자인 제임스 화이트와 혼인했다. 그들이 혼인하고 얼마 후 제임스와 엘렌은 성경을 기초로 한 제칠일안식일을 받아들였다.

엘렌과 그녀의 남편 제임스, 그리고 은퇴한 선장 요셉 베이츠는 함께 1863년에 생성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창립자로 인정받는다.

또한 재림교인들은 화이트 부인 - 혹은 교회에서는 “화이트 여사”라 불려진 - 이 분을 40여개의 책과 5,000개의 정기간행물을 출판한 다작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녀가 1915년에 사망한 후 아직 출판되지 않은 그녀의 자료들과 출판된 자료들을 함께 모은 더 많은 책들이 출판됐다. 현재까지 그녀의 책들은 영어로만 100권

이상이 출판되었으며 전 시대를 통틀어 미국 여성작가로서 가장 많은 번역본을 소유하고 있다.

그녀의 긴 전도생활 동안 그녀는 교회의 의료, 출판, 교육사업을 세운 직접적인 도구였다. 그리고 물론 그녀의 수많은 비전을 바탕으로 한 그녀의 출판된 조언들은 어린 교회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재림교인들은 처음부터 화잇부인은 진정한 성경적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9장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최종적이며 마지막 자손들을 나타내는 수 있는 두 개의 표시 중 예언의 능력 또한 이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믿는다.

엘렌 화잇은 단 한번도 본인이 선지자라고 말한 적은 없고 대신 자신을 “하나님의 전달자”로 언급했고 선지자임을 알 수 있는 성경적인 시험을 적용함으로써 재림교인들은 그녀가 진정 예언의 성경적 은총을 받았음을 확신한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혹은 없는지 알기 위해 성경은 주요 시험들을 알려주고 있으며 아래는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다.

1. **이루어진 예측에 대한 시험** - 예 28장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 받게 되리라.”

이 시험은 “조건적” 예언의 원칙 - 어떤 예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이루어진다 -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 원칙은 예레미야가 세웠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 예 18 장 7-10 절.

2. **성경과 일치하는 시험** - 사 8 장 20 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성경 시대에는 - 그리고 그 후 몇 세기 동안 - 기존의 모든 예언적 그리고 성서적 글은 성공적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측정하는 데의 기준이었다. 물론 나중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력/통찰력을 지닐 수 있겠지만 이 개념들은 절대 기존의 선지자들로 인하여 밝혀진 기본적인 진실들을 반박할 수 없다.

3. **열매 맺음의 시험** - 마 7장 15-20: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 .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시험은 - 기존 두 개의 시험과 달리 - 열매는 바로 생기고 익지 않으므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지자로서의 성격과 선교사업, 그리고 예언이 점차 뚜렷해질 때 아주 조심스러운 평가를 통해 그 선지자의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질 지 나타나게 된다.

4.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임을 증인하는 시험** - 요일 4장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진정한 선지자는 예수께서 한때 이 지상에서 살았다고만 인정하지 않는다. 진정한 선지자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 동시에 인간이셨음을 가르치고 알린다. 예수의 성육신은 진정한 선지자의 선교와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5. **출처의 시험** - 진정한 선지자는 그들만의 예언을 만들지 않고 오직 성령만이 알려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다 - 베후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마찬가지로, 진정한 선지자들은 예언에 대하여 개인적이거나 사사로이 해석을 내놓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 오직 성경만을 통해 해석한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 베후 1장 20절.

재림운동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수백 명, 수천 명 그리고 결국 수만 명의 사람들은 엘렌 화잇의 삶과 말씀을 연구했고 그녀의 선교를 성경에 기록된 이 시험들을 토대로 그녀가 진정한 선지자인지 확인했다. 해마다 결론은 항상 같았다: 엘렌 화잇은 그녀의 삶과 언행, 그리고 글에서 그녀가 진정한 선지자임을 증거했다.

그러나 몇몇은 화잇부인의 글들이 과연 성경과 연관성이 있는지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녀의 글들은 성경의 추가적인 글인가?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성경 진리 - 오로지 성경을 - 바탕으로 한 개혁과 알 맞는가?

교회 초기에 재림교인들은 이 질문들을 정리해야 했다. 그리고 1863년 선구자이며 편집장이자 작가인 유라이아 스미스는 교회 잡지 - 리뷰 앤 헤럴드 - 에 “우리는 계시를 지지하기 위하여 성경을 버려야 하나?”라는 제목아래 글을 썼다. 이 기사에서 그는 종교개혁의 중심원칙에 집중을 했다: “성경 - 오직 성경만으로.”

도선사

스미스 장로의 기사는 목적지에 가까운 원양전기선에 대한 예를 들었다. 선박의 매뉴얼에 의하면 항구에 진입하기 직전, 배는 멈추고 도선사 - 항구의 험난한 물을 잘 알고 있는 자 - 를 태워야 한다.

“성령의 은사들은 아주 위험한 요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마치 도선사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어디서든, 그 어느 누구로부터든 이러한 진정한 징조를 찾을 경우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들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 누가 오로지 성경 위에 서있는가?” - 리뷰 앤 헤럴드, 1863년 1월 13일 발행.

성경에는 남은 교회가 목적지에 도달하면서 마지막 여정의 가장 험난한 물길을 헤쳐나가기 위해 남은 무리에게 “도선사” - 예언의

은사 - 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이것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음을 확인했다 - 누가 정말 성경, 오로지 성경만을 믿는가 - 도선사를 받아들이는 이들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사람들인가를 스미스 장로가 질문했다.

엘렌 화잇은 절대 그녀의 글들을 성경의 부과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신 “더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으로 생각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듯이, 성령이 예수를 높이기 위하듯, 그녀의 예언적 글들은 성경이 높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다른 교회들도 물론 그들의 선지자들 - 혹은 영감 받은 책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이 있다. 물론교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와 비슷한 시기에 탄생했으며 모르몬교와 다른 영감 받아서 쓰여졌다고 믿는 책들을 갖고 있다. 이 책들은 성경과 동등하게 - 그리고 부과물로도 - 본다.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외경 또한 성경의 일부이며 성경 자체로 본다.

엘렌 화잇의 글들 - 재림교인들은 이 글들은 “예언의 신”이라고도 부른다 - 을 성경과 그 진리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주는 밝은 불빛 혹은 돋보기로 받아들인다.

다른 교회들이 주장하는 선지자와 영감 받은 글들과 재림교회와 또 다른 큰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법령/칙령과 교회 관습들이 성경 위에 존재하며 - 이것들이 성경과 맞지 않을지라도 우선으로 본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사와 표명을 성경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 그리고 성경과 알맞지 않는 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예언의 은사인가?

교회 내에서 예언의 신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 목적은 무엇인가? 왜 교회가 이것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까? 다음 조언/제안/의견들을 살펴보자:

1. 하나님의 작지만 충신들이 몇 세기 동안 소외되고 억압된 성경의 진리들을 지켜냈듯이, 예언의 신 또한 인류의 역사가 끝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복원하시려는 진리들에 대해 빛을 비추시다:
안식일, 성소, 죽음의 상태, 재림,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그러나 재림교회가 그들의 교리들을 - 진리들을 결집하는데 -
주로 엘렌 화잇의 비전과 글들을 바탕으로 발달시켰다는 몇몇
이들의 비난을 너무 생각하지 말자.

예를 들면, 초기에 비평가들은 화잇 부인의 비전만을 바탕으로
하늘성소에 대한 교리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1874년에
유라이아 스미스 장로 - 당시 리뷰 앤 헤럴드 편집장 - 는 이러한
비난들을 사설로 반박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수백 개의 글들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
비전들 중 그 어떠한 것도 이 주제에 대하여 단 한번도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으며 우리가 믿는 그 어떠한 비전의
유래된 곳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 . . 우리가 믿는 이
주제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 충분히 나와있으며 오로지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 - *리뷰 앤 헤럴드*, 1874년 12월 22일 발행.

교회로서 우리의 초기 역사를 자세히 연구하면 성소 진리에
대한 스미스 장로의 글은 재림교인들의 성경 연구를 통해 발견한
모든 진실들에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과 기도를
통한 성경연구를 한 재림교인들은 엄청난 성경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진리들은 화잇 부인의 비전을 통해 모두 진실이며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기록될 화잇 부인의 글들은 이 진리들의 중요성을 높이고,
존중하며 강조할 것이다.

**2. 예언의 신은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과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에 대하여 알리는 선교사역을 하는데 막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와 사단간의 대쟁투에서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하는데 헌신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에 알리고
지키는 일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의 오랜 특권이였다.
이제 이 대쟁투가 끝나갈 무렵, 이 임무 - 남은 자손들의 임무 -
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급하고 중요하다.

하나님께서서는 죽음과 고통, 그리고 피로움의 근원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서는 파괴자가 *아니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잘못을 찾으려는 복수심으로 가득 찬 판사가 *아니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지키기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만드신 법의 지은이가 *아니시다*.

엘렌 화잇은 고상하며 유창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기록했다 - 또한 *강로의 계단, 시대의 소망*, 그리고 *실물교훈*과 같은 그녀의 책 속에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이들에게 재림교인들이 간절히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다.

3. 예언의 신은 대쟁투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기록되어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교회도, 그 어떠한 종교단체도 성경의 중심 이야기 - 주제인 대쟁투 - 에 대하여 가르치거나 이해를 전혀 못한다는 사실을 그대는 알고 있나? 이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만의 특징이며 이를 아직 모르거나 이해를 못한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대쟁투 주제”는 큰 그림이다. 선과 악의 장대한 결투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이다. 각 나무들이 위치하는 곳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큰 숲의 그림이다.

대쟁투만이 삶의 크고 신비한 질문들을 대답해 줄 수 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시라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할까? 죄 없는 이들이 왜 고통을 받고 살까?

대쟁투는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끝날지도 선명하게 알려준다. 이는 죄와 죽음이 곧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우리가 죄 없고 완벽한 평화가 존재하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다 준다.

마지막으로, 대쟁투는 성경 진리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테두리/뼈대이다. 천년 설이 안식일 진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대쟁투 주제가 알려줄 것이다. 모든 진리들을 대쟁투의 큰 그림 속에서 살펴보면 각 진리들은 마치 퍼즐의 조각들처럼 제 자리를 찾아간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 이야기들은 추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데 도와준다. 그리고 대쟁투의 이야기만큼 더 크고 중요하고 관심을 사로잡는 이야기는 없다.

4. 예언의 신은 독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끈다.

성경은 자신을 말씀이라 부른다 - 그러나 동시에 예수께서야말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선명히 알려준다. 그리고 이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무리들에게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살아계신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 모두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엘렌 화잇의 글들은 말씀이신 예수의 사랑과 품성 그 자체를 호흡한다. 그녀의 가장 큰 짐은 독자들이 예수와 깊이, 현실적이며 성장하는 나날의 관계를 갖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모든 글은 예수를 높인다.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예수에 대하여 가장 선명하게 기록된 곳이 그 어느 곳보다도 기록된 말씀임을 알았기에 그녀는 성경 또한 찬양했다. 교회가 사립회의를 마치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한 말은, 성경책을 높이 들고 외쳤다 “형제들이여, 이 책(성경)을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5.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신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거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 알려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재림교인들이 부르는 “건강기별”이다. 오늘날 의학계와 연구들은 엘렌 화잇이 무려 100년전에 말한 건강, 질병, 그리고 인간의 신체에 대하여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 때 의사들이 폐질환의 치료법으로 담배를 처방했을 때, 엘렌 화잇은 니코틴의 치명적인 영향력을 경고했다. 육식 위주의 식습관, 과식, 그리고 음주에 대하여 그녀는 그녀의 시대보다 훨씬 앞선 경고들을 해왔다. 오늘날에는 값비싼 요양시설들은 그녀가 몇 십 년 전에 이미 기록한 가장 자연적이며 간단한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다.

6. 예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간 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측들을 나누셨다. 엘렌 화잇의 선교사업 초기에, 시작되기도 전에, 그녀는 남북전쟁으로 이어질 비극에 대하여 경고했다. 또한 유심론의 상승에 대해 예언했다 - 우리의 시대에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뉴에이지 철학, 동양의 신비주의, 죽은 자들과의 교신, 점성술, 심령술사와 중간 매개인 등 많다. 오늘날과 특히 관련성 있는 그녀의 예언은 성경 예언을

이루는데 있어서 미국과 교황권의 역할이다.

물론,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위대한 예언의 은사를 남은 무리들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적은 분명히 과감하게 이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공격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향해 가능한 모든 비난과 질문들 그리고 공격을 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의심과 빗대를 보냈다. 그러나 수백 년간의 공격 속에서도 굳게 서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의 예언의 은사 또한 굳게 서있다.

축복받은 우리들...그리고 영광 받은 우리들

모든 질문들을 떠나서 엘렌 화잇은 실수가 많은 인간이었다. 작가로서도 실수를 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글들을 외판 단어들과 문장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녀의 메시지가 - 분명히 - “더 큰 빛”과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재림교인들은 가끔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창피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또한 그들이 성소와 성전 그리고 선지자가 있음 - 그들 또한 “선택 받은 자들” - 을 창피해했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남은 자손들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축복임을 알고 영광스럽게 느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험한 산들을 스스로 헤쳐나가게끔 우리를 단지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는다...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도선사를 보내셨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 말해주나?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 - 성실하고 충성스런 선택 받은 자들 - 이 계셨고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은 오늘도 존재한다.

제 13 장

우리들의 정체성

1844 년의 대실망 이후 아마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이끌 리더들은 그 때 당시 흔했던 “응접실/객실” 혹은 “거실”에 모여 앉아 모임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1863 년에 재림교인 수는 대략 3,500 명이었다.

2006 년도까지 전세계의 재림교인 수는 대략 1,500 만명이며 - 최근에는 평균적으로 해마다 100 만명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놀라운 성장은 물론 축하할 일이다. 이 성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이 마지막 날에 얼마나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는지를 측정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공식적이며 체계적인 교단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단순히 “또 다른 교회”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 대신 재림교인들은 자신을 하나의 “운동”으로 본다 -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왔을 때 그들을 혼란스러운 다른 교회들, 즉 “바벨론”에서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재림교인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들은 특별히 선택 받은 존재라고 믿는다. 그러나 선택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남들보다 더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선택 받음으로서 그들에게는 독특하고 긴급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완벽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기에 독특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시간이 없으므로 시급하다.

그러나 최근 몇 십 년간 우리의 놀라운 성장이 축하 받고 감사하기 좋은 상황이면 랜덤과 혼란 속에서 성장하는 상황 또한 엄청난 불행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의사든 암의 그 정의/의미 자체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매우 빠른 속도로 번식하는 세포들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옛날부터 체계화하고 재구성하고 또 재구성 반복해야 했다. 그리고 아마 이 땅에서 우리의 임무/미션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끝나면 봉사를 위한 우리 교회(Church for service)는 현재보다 더 많이 바뀔 수 있다.

누구에게는 3,500 명의 교인들이 존재했던 1863년 당시의 구조가 부적절할 수 있다 - 운영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구조 - 현재 1,500 만명의 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자라면서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장 실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지리적 소단위로 나누기로 선택했다. 처음에는 대총회 - 사명을 위한 본사를 세웠다. 특정 주(州) 및 소지역 또한 그들만의 “지역 합회”가 있었다. 교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개의 지역 합회를 “연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결정하므로 서 1901년에 여러 개의 연합회들이 형성됐다.

오늘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 혹은 레벨의 교회구성이 있다:

- ▶ 지역교회
- ▶ 지역합회
- ▶ 연합회
- ▶ 대총회와 지회

지회- 한 개의 대륙, 대륙의 부분들, 혹은 섬 지역들 - 을 “지회” 로 구분하는 이유는 대총회의 “가지”로서 그들의 지역에서 인정받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교회조직으로서 별개 혹은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다. 지회는 오히려 그들이 속해있는 지역의 대총회 그 자체이다. 우리는 현재 13 개의 지회가 있다.

- ▶ 동 중앙 아프리카 지회
- ▶ 유로 아프리카 지회
- ▶ 유로 아시아 지회
- ▶ 중앙 아메리카 지회
- ▶ 북 아메리카 지회
- ▶ 북 아시아 태평양 지회
- ▶ 남 아메리카 지회
- ▶ 남 태평양 지회
- ▶ 남 아프리카 인도양 지회
- ▶ 남 아시아 지회

- ▶ 트랜스 유러피안 지회
- ▶ 서 아프리카 지회

각 지회내에는 연합회와 교회가 있다. 예를 들어 북 아메리카 지회에는 9 개의 연합회가 있고 이들은 여러 개의 주, 주의 부분, 혹은 캐나다와 지역을 포함한다.

교회의 각 ‘단계’들은 그들이 속해있는 지역을 섬기고 자원과 행정, 교육, 영적 동기 등을 지급하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 구조의 각 독립체/기관-각 단계는 유권자들의 대표와 단체 즉, 그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 지휘권을 얻게 된다. 교회의 각 단계는 -교회이든 합회이든 연합회이든 - 서로간의 협동을 통해 각자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한 합회에 속해 있는 각 교회들은 그 합회 전체의 유권자들의 지지로 인해 존재하며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정해진 합회에서 대표들이 정기회의를 통해 합회지역의 교인들이 합회 지도자들과 집행 위원회에 책임을 맡듯이, 그 합회에 속한 각 교회들은 그 합회에 속한 모든 교회 집단의 뜻을 받들 책임을 갖고 있다.

재림교인으로서 당신은 이미 교회 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굳이 이 전체 장을 통해 세계에 분포된 모든 합회와 연합회 -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자기 지역을 섬기는 모든 단체들 - 의 역할에 대하여 자세히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재림교회 연감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백과사전을 출판본 또는 온라인 판으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 마치 군대가 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조가 탄탄하듯이 당신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는 점에서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당신은 최대의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돼있는 교회에 속한다. 이 상황에서는 주자들을 위한 거대한 이익이나 군사적 성공과 같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결과는 진리이신 예수 -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날에 대한 진리들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출석하고 있는 재림교회를 다니면서 당신은 세계적인 운동의 일원임을 깨닫고 - “끝날 일”과 예수께서 친히 재림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비전을 함께 믿고 나누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세계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교회가 북아메리카에서 시작됐지만 당시 교인들과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글로벌 비전을 갖고 있었다.

1874년, J. N. 앤드류스는 미국을 떠나 스위스로 향한 우리 교회의 첫 해외선교사였다. 곧 매 해마다 다른 국가들을 섬기기 위해 재림 선교사들이 해외로 떠났다 - 처음에는 몇몇밖에 안됐지만 곧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인들이 파도처럼 나가기 시작했다.

J. N. 앤드류스의 발걸음을 따라 해외로 나간 초기 해외 선교사들 중 -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 떠난 이들 중 몇 명은:

1874: C.M 앤드류스; A. 뵐레우미에. 스위스 파견

1875: 제임스 얼젠베르거. 독일 파견

1875: D.T. 보르도. 스위스 파견

1876: D.T. 보르도. 프랑스 파견

1877: J.G. 매트슨. 노르웨이 파견

1877: 윌리엄 잉스 부부. 스위스 파견

1878: J.N. 러프버러. 영국 파견

1878: 마우드 시슬리. 영국 파견

1879: J.P. 재스퍼슨 부부. 노르웨이 파견

1880년대 초반, 해마다 선교사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곧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해외선교로 파견됐다.

호주, 서인도제도, 인도, 트리니다드, 중앙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하와이 섬, 멕시코, 폴리네시아 - 곧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선교사들은 세계 곳곳으로 나아갔다.

오늘날에는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교회사업이 안 닿은 국가들 - 안 닿은 외진 곳이 거의 없다. 아마도 우리 교회만큼 글로벌 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앞으로 전진하는 복음전도 - “끝나가는 일”을 향한 진전 - 는 현재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남은 무리들이 바람 타는 불길처럼 증가하고 있다. 폭발하듯 증가하고 있어서 대형 수영장에서 거대한 침례식이 진행되고 있다 - 그리고 새로운 교회들이 놀라운 속도로 구성되고 있다.

지구 다른 곳에서는 라오디게아적 무관심이 아직도 존재한다. 풍족과 과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방해들은 잠잠한 교인들을 무기력한 무 활동 존재로 만든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아는 것들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첫사랑”이 식었고 왜 재림교인인지 그 이유를 잊었다면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동기와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마지막에는 성령의 늦은 비가 세계적으로 교회를 휩쓸어 새로운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비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 교인들이 사람들을 자신들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만든 예수께 이끌기 위하여 새롭고 강력한 바람이 휩쓸 것이다.

그 때가 오면 세계적으로 교회가 균등하게 빨리 발전 할 것이다. 복음전도는 진정으로 세계적으로 변할 것이며 - 단순히 대중회의를 통해서가 아닌 불타는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더욱더 퍼져 나갈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의 마지막 자녀들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될 때 온 세상은 영원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 충성을 다하느냐 -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적에게 충성을 다할 것인가.

세계적인 봉사활동

당신이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세계적인 봉사활동과 선교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이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놓는지도 생각해 보아라. 세계 곳곳에서 우리 재림 교인들은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활동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전도 - 집회를 통해 (특히 최근에는 더 큰 관중들을 접근하기 위해 위성방송을 사용), 개인적 성경 공부, 문서전도,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건강 세미나, 그리고 다른 전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나눈다.

교육 - 재림교회는 대략 6,000 개의 학교들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까지 운영한다.

건강과 의료 - 세계적으로 500 개 이상의 병원, 요양원, 클리닉 그리고 진료소가 있다.

재난과 기근 구제 - 재림교회의 민간구호기구인 ADRA(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를 통해 우리는 음식과 의류 그리고 의약품 등을 통해 세계 어디서든 일어나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ADRA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을 위한 기근구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지역 봉사활동 - 수많은 지역 재림교회들은 형편이 어려운 지역주민들과 노숙자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지역봉사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다.

출판 - 세계적으로 거의 60 개의 출판사들이 있으며 인쇄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이 있다.

통신 - 재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동시에 사용한 첫 종교들 중 하나이다. 오늘날, “희망의 소리”, “생활잡지”, “Breath of Life”, “It Is Written”과 같은 방송들은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방송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은 참으로 좋다 - 구조적인 교회, 세계적인 가족이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케아이기 때문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 요한계시록 3장 14-20절.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미지근한 영적인 경험이다.
 예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나쁜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가 너무 바빠 예수와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자체 충족을 느낄 때 이다.
 분명히 아닌데 스스로 괜찮다고 확신을 할 때 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교회로서 움직이는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교회들 또한 스스로 너무
 자급자족이어서 유일하며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과 계획, 예산 그리고 구조에 너무
 기댈 수 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를 향한 말씀에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금과 흰 옷 그리고 안약 - 하나님의
 의의, 사랑 그리고 성령- 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을 위해 문을 열어드릴 수 있다.

아무 대답 없이 예수를 문 밖에 서성이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로서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남은 자손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 재림교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무슨 뜻인지 - 라오디게아의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진심으로 신중하게 고려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라오디게아이기 때문이다!

대학 수업에서 좋은 교수들은 학생들이 매 강의마다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중요한 생각 - 강의의 요점 - 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이 책 또한 “중요한 요점”이 있다.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엄청난* 중요한 일의 일부분이다 - 경천동지하게 중요한, 그 어떠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을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한 일 말이다. 당신은 에덴을 잃은 순간부터 다시 에덴이 복원될 순간까지 존재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이들의 일부분 - 가장 마지막 부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신 은사/영적인 선물을 찾고 활용할 당신 - *맞다*, 당신 - 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분을 당신만큼 모르는 이들을 향한 열정을 키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라신다.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당신이 매일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돼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거짓말에 눈 먼 이들을 위해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과 손, 그리고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어떠한 분 이신지에 대한 *진실*을 당신이 알리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해주어야 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가까이서 직접”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속에 살게 허락해드려야 한다!

우리의 신분/정체성

우리 모두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질문들 중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마주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의 직업, 성취한 일 혹은 우리에게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의 정체성과 혼란 시킨다. 그러나 당신은 유일무이하다. 나 또한 유일무이하다. 우리 개개인은 모두 완전히 다르며 독특하다. 그리고 우리의 직업과 삶 속에서의 역할들, 그리고 다른 이들의 평가를 떠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당신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라면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질문과 싸우게 된다. 개인적인 정체성이 아닌 단체로서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재림교인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을까? 우리가 왜 존재할까?

아메리카 종교 백과사전에는 미국에 존재하는 1,588 개의 교파와 신앙단체들을 기록한다. 그리고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에는 세계적으로 10,000 개의 분명한 종교들을 확인한다. 이 종교들 중 기독교는 33,830 개의 세계적인 교파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단순히 이 수많은 교파들과 교회들 중 하나인가? 이 교회가 정말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거짓 교리들로 인해 길 잃고 속은 이들에게 나오라며 부르시는 이들의 피난처인가? 우리가 곧 멸망할 지구를 향한 긴급한 메시지를 나눠야 할 운명을 지닌 진짜 운명의 운동인가?

물론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가끔 주의를 빼앗기곤 한다. 집중이 흐려진다. 교회 기준과 교리들에 대하여, 예언의 신이 아직도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 다투느라 잠시 탈선한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사단은 재림교의 가정들, 학교들과 기관들, 심지어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한다.

친구여, 그러나 악마가 가장 악한 행위를 할 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최선을 다 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예언된 늦은비 - 성령의 위대한 분출 - 의 전권을 목격하지 못했다. 늦은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활을 제공할 것이다 - 전도로 인해 오순절 때 이미 나타난 힘 - 그러나 이는 예수와 유사하게 변화/변형시키진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라 한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 요한계시록 7장 2,3절.

이마: 생각...마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더 이상 흔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다 -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전념/헌신은 절대 되돌려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은 그들의 이기적인 삶으로 돌아갈 바에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안착”하는 과정은 꾸준히 그리고 서서히 이루어진다 - 몇 년 혹은 몇 십 년 동안 거칠 정도로 오랜 시간을 거친다. 어떤

이들은 빨리 안착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은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다. 진리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방금 부어진 신선한 콘크리트가 천천히, 그러나 서서히 “굳는” 현상과 비교할 수 있다. 결국 콘크리트는 딱딱하게 굳는다 - 그리고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번 진리에 “안착”하게 되면 -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되돌릴 수 없는 충성심을 갖게 되면 - 그 때... 드디어 *그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남은 무리들에게 주신 일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는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보여주면서 알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언을 하면 - 그들의 믿음을 나눌 때 - 그들은 단순한 선포자가 아니다. 모든 글쓰기 선생이 강조하듯, *말만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언제나 항상 더 좋다!*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것보다 영적으로 밀고 나가는 전도가 훨씬 더 뛰어나다 - 물론 단순정보도 알려주는 것도 포함하면 좋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도를 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그들의 삶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더 우수하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그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준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예수께서 신성한 능력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예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기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무엇보다 더 간절히 대쟁투를 끝내고 대쟁투로 인한 모든 마음 아픈 괴로움을 없애고 싶어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켜질 수 없는 법을 만드셨다는 사단의 거짓증언(자신의 반항에 대한 핑계)들을 완전히 풀어야만 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심으로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실 것이다 -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의문이 들지 않도록 그들의 삶 속에서 이 거짓증언들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매일 드린다면 - 하나님 것이라는 영원한 징표가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 우리는 우리의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분의 재림을 재촉 할 수 있다.

이 세상 몇몇 곳곳에는 마른 풀 사이에 번지는 불처럼 교회의

사업이 사람들 사이로 빨리 퍼져나가고 있다. 어떤 이들은 분명 늦은비가 이미 시작됐다고 믿을 수 있다. 다른 곳들에서는 비교적 많이 느리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곧 바뀔 것이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우리에게 긴급주의를 주고 있다. 환경은 급격히 죽어가고 있다. 어느 국가이든 자유와 안보가 위협당하고 있다. 악마로 인한 황폐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1면에 나올만한 모든 기사들이 뒤로 밀릴 정도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에게 사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면 우리는 이미 할 말을 잃었을 것이다.

곧 있으면 선과 악의 정면 대결이 모든 것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 받은, 충성스런 제자들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위하시어 그의 마지막 노아와 다윗 그리고 루터들을 부르실 수 있기 때문이다.

마무리 단계가 곧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나?

만약 당신이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아마 부모 혹은 자녀, 형제 혹은 친구로서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혹은 로맨틱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을 알 수도 있다. 만약 극도로 깊은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도 경험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나? 대쟁투의 마지막 날들을 세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빠 해야 할까?

이 전 두 문단을 다시 읽어보자. 당신이 예수와 진정으로 사랑에 빠져있다면 예수를 위해서 *그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당신은 특별히 더 하고 싶어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가 당신의 마음속에 계셔서 당신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 다른 이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 때에 따라 예수께서는 그의 진리에 대하여 나누길 원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지식을 나누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로부터 필요한 것 - 그리고 오늘 필요하시다 - 은 우리 개개인이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선명하게 볼 수 밖에 없도록 그분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간절히 필요로 하신다! 그분의 사랑을 바로 눈 앞에서 봄으로서 그에게 반항한 이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분에 대하여 전하는 것에 대하여 소심하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진실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임무는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구세주를 함께 알고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들이 그분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순간, 예수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진리들을 설득하는 일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재 2000년대까지 존재해 왔던 셀 수 없는 신실하고 충성스런 자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섰다. 그들은 진리로부터 흔들림이 없었다 -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곧 어느 날 -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이 - 우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저 반대 편”에서 우리를 앞서 존재해 왔던 충신들을 만날 특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한 그 분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굳게 서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려달라고 우리는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고통으로 가득 찬 이 행성에서 우리가 더 오래 머물러야 할 좋은 이유가 정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온 마음을 다해 끝내도록 하는 것이 어떨 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 - 성실하고
충성스런 선택 받은 자들 - 이 계셨고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은
오늘도 존재한다.

제 14 장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다.

당신은 재림교회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재림교회 학교에 다녔을 수도 있고, 평생 재림교인으로서 살았을 수도 있다.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떠나 이 새로운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 재림교회를 세월이 흘러 “찾았을 수도 있다”. 당신은 아직 재림교인이 된 지 얼마 안됐을 수도 있다.

당신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다.

가톨릭, 침례교, 감독교회/성공회, 감리교인이 아니다. 유대인, 하느님의 성회, 혹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자가 아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신자가 아니다. 무신론자 혹은 불가지론자 또는 이신론자 또한 아니다.

당신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다.

따라서 당신은 다른 이들과 비슷하게 생긴 교회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교회들과 다르다. 1844 년의 중대성에 대하여 당신의 교회처럼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어떤 교회에서 하늘성소와 조사심판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가? - 혹은 “대쟁투”에 대해서도 말이다. 또한 몇몇의 다른 기독교인들만 제 칠일 안식일과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예언의 신 혹은 죽은 자들의 무의식상태에 대하여 믿는다.

당신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다.

이는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재림교인인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기 방영된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Sesame Street)”에 나오는 커밋 개구리 캐릭터는 “It’s not easy being green(녹색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라는 노래를 부른다. 물론 최소 홀로 녹색이면 쉽지 않다. “다르게” 사는 것은 더 큰 집단을 따르도록 쫓겨나고 비난 그리고 사회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재림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 지금도 쉽지 않을 것 - 이다.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 혼자서만 채식주의 식사를 주문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데 비난을 받는 것. “이단”으로 오해 받지 않고 당신의 교회에서 엘렛 화잇의 역할과 교회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

당신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다.

그리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인 것은 당연히 자랑스러운 것이다(거만하고 무례한 태도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중대하며 독특한 사업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리낌없이 당당히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나눌 이유가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 정답 중 다음과 같은 몇몇의 정답들을 고려해보자:

1.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란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확히 언제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하여 몇 천년 전에 말씀하신 예언이 의 일부이며 이 예언들을 그대로 믿고 이를 정확히 구분할 표시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예언된 사람들 중 한 명 - 2300 년과 1260 년 끝에 일어날 “남은 자손”들 - 이다.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란 - 이 세상의 어떠한 방송국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든 - 당신은 서기 2000 년대 초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일의 일부이다.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이자 가장 긴급한 메시지를 나누는 운반수단의 일부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 그리고 당신의 삶은 예시이다 -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며 예수의 재림이 임박 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3.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 그 어떠한 위조품과 달리 모든 성경의 시험들을 합격한 진정한 선물인 예언의 신 또한 포함된 - 모든 영적인 이득을 을 주신다.

4.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을 복원시키는데 헌신하는 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진리들이 복원됐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날에 대한 중요하고 독특한 진리들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려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5.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6.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 그의 계명 - 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률을 금지조항, 즐거움을 없애고 못 견딜 박탈로 밀어 넣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대신 최종적인 고통과 손실 그리고 결국 죽음까지 가는 길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지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란 성경이 지시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닌 -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7.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되는 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다. 구원에 대한 재림교회의 시각은 “거저 받는 은혜”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법률주의 또한 부인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과 당신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어하시는지* 에 대한 불균형을 피한다.
8.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되는 것은 다른 단체들은 단순히 행위만 하고 그들의 존재성을 이미 옛날에 잊었지만 당신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안다는 것이다. 당신의 교회는 특정한 *이유*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지구의 역사 속에 아주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마지막에는 온 세상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과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는 중요한 임무이다.
9.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죽어가는 교회의 일부가 아닌 것이다 - 혹은 단지 먼저

해엄 치고 있는 교회의 일부가 아니다. 당신은 교회 발전을 연구하는 이들의 눈에는 경이로우며 어마하고 급속히 자라는 운동의 일부이다.

10.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로서 당신은 어떤 작고 어떤 지역의 이단종교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은 아무나의 “파생물”이 아니다. 당신은 성장하는 모습이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운동의 일부이며 세계적인 의료, 교육 그리고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알려져 있는 운동의 일부이다.
11.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란 당신의 교회가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길을 헤매고 있지 않다 - 그리고 절대 헤매지 않을 것이다 - 정치와 뉴에이지 이론들 그리고 자립적 심리학 등 말이다. 당신의 교회는 도덕적 범물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내적인 도덕물을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당신의 교회는 반복적으로 자신을 재개발하지 않았다. “결과”를 바꾸지 않았다 - 딱 한가지 결과를 갖고 있다: 예수와 그의 진리이다.
1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교회 - 그리고 당신이 - 선과 악, 즉 예수와 사단간의 오랫동안 지속된 대쟁투라는 “큰 그림”속에 어디에 속하는지 아는 것이다. 당신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진 신실하며 충성스런 계보의 마지막 사람이다. 당신은 과거의 신실한 모든 이들과 연결돼있다: 부조와 선지자들, 이스라엘에서 선택 받은 이들, 사도들과 초기 교회 신자들, 세기들 초에 핍박 받은 이들, 암흑시대 속의 충신들, 종교개혁의 담대한 개혁자들, 재림운동의 열정 있는 성경공부 학생들, 당신의 교회의 창시자/선구자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에게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대담하게, 자랑스럽게, 위축되지 않고 굳게 서있다. 당신은 시간이 없다는 긴급함 - 그러나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들의 구세주와 그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 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이자 없어선 안될 백성이다.

당신은 이 지구를 살아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남은 우리들 중 한 명이며 이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야 할 임무이자 특권을 갖고 있다.

당신은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선택 받은 자들 중 한 명이다.

창피한가? 자신감이 없는가? 당신이 갖고 있는 (기이하며 독특한) 불빛을 숨길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세상은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이미 찾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 당신이 특이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굶주리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빵을 당신이 갖고 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보물을 향한 지도는 당신 손 안에 있다.

혹은 두려운가? 두려움 - 이전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 결국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야곱의 환란을 겪어야 하기에 두려운가? 당신의 빵과 물을 약속하는 성경 말씀 외 - 또한 시편 91 편의 엄청난 약속 외 -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박해뿐 아니라 순명을 해야 한다면 이 또한 견딜 수 있는 자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전에 박해 받은 이들에게 주신 것들을 당신에게도 주시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경험을 하도록 당신을 부르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그의 약속을 굳게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대신, 이 삶의 괴로움이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행복한 기대감에 빠져 있어라.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의 끝이 임박하다는 것에 즐거워하자. 영원하며 완벽한 평화, 행복 그리고 당신의 모든 순수한 희망을 이루기 위해 이 지구를 버릴 준비를 해라.

당신은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다.

당신은 마지막 충신들 중 한 명이다.

당신은 끊어지지 않은 신실한 자들의 계보의 일부이다.

당신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인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 - 성실하고
충성스런 선택 받은 자들 - 이 계셨고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은
오늘도 존재한다.

과거... 그리고 현재

재림교회 가족 앨범에서



윌리엄 밀러(좌측)는
19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
대재림운동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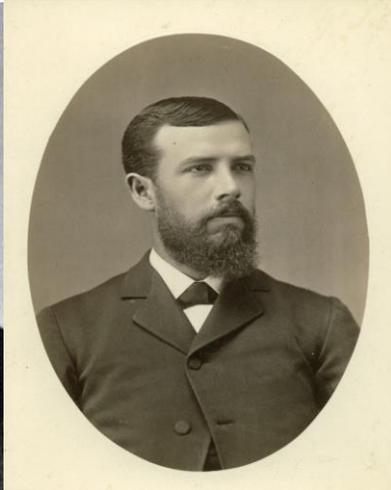
윌리엄 밀러 채플(우측)



윌리엄 밀러의 집(좌측).
뉴욕의 로우 햄턴 농가.



엘렌 G. 화이트(좌측상단 - 우측에는 남편 제임스와 함께), 그리고
캡틴 조셉 베이츠(좌측 하단)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세웠다.
화이트 부인의 아들 윌리엄 C. (별명: “윌리”) 화이트 (우측 하단)은
그의 어머니의 선교 사업을 도우는데 헌신했다.





Elmshaven (상단)은
북캘리포니아에
위치하며 엘렌 G.
화잇이 노년을 보낸
집이다.

1800년대 후반에
재림교인 의사 John
Harvey Kellogg,
M.D.는 배틀 크릭
요양원을 미시건주에
세웠다.

좌측 중앙: 1902년
화재로 인해 무너지기
전 사진.

좌측 하단: 재건된
1929년에 찍은
요양원.



1905년에 엘린 G. 화잇은 존 버든 목사의 도움을 받아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로마 린다(Loma Linda)에서 과거에 건강 수련원을 구매했다. (상단 사진 참고). 그 때를 시자그로 로마 린다는 세계적인 대학교와 의과대학으로 발전했다 (하단 사진: 메디컬 센터/의과 대학 건물 사진(2005).





20 세기 초반에 로스앤젤레스 남중양에 위치한 보일 애비뉴에 작은 진료소가 세워졌다. 이 곳에서 시작된 의료선교는 엘린 G. 화잇의 이름을 딴 화이트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 캠펙스 (하단)로 자랐다.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세계적으로 60 여개의 출판사를 운영한다. 북아메리카 지역에는 메릴랜드주의 헤거스타운에 위치한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상단)과 아이다호주의 보이스에 위치한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이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대총회의 세계 본부 빌딩(상단) 그리고 본부 건물 표지판이다(하단). 사진 저작권 © 2005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



주문 안내:

E-mail: shanson@rh pa.org

대량 주문: 1-800-600-7197

현재 출판된 번역본:

- 영어
- 스페인어
- 불어
- 포르투갈어
- 스와힐리
- 루마니아어
- 한국어

계획된 번역본:

- 타밀어
- 러시아어
- 독일어
- 이외 언어들도 계획됨

본 책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싶을 경우

www.thecalledthechosen.com 을 통해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calledchosen@gmail.com

www.thecalledthechosen.com

선택 받은 자들...부름 받은 자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존재해왔던 하나님의 진정한 충신들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 흔들리기에는 너무 강하고 굳건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이 있으셨다. 자신을 오류와 타협 그리고 거짓으로부터 분리하는 이들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이 있으셨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알리기 위한 선택 받은 이들 -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보호하는 이들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그의 사람들을 갖고 계신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끊어지지 않는 이 기나긴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의 복음 -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들이 예수를 알고 그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 을 가지고 세계에 선포하는 시급한 임무를 주셨다.

누가 부름 받았는가? 누가 선택 받았나?

바로 당신이다!